

2014 SPRING VOL.43

만 남 |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집 | 세 번째 추기경

유경촌 주교 인터뷰

이야기 |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나 눔 | 회원단체 탐방

배 움 | 김문태 교수의 인문학 강좌



# **CONTENTS**







만 남 02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명백훈

특 집 08 세 번째 추기경 | 강성화

13 유경촌 주교 인터뷰 | 배봉한

0|0|7| 16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산다는 것 | 김의철

신앙의 대물림은 결혼 성소자들의 소명 | 임재홍

소명은 그리스도의 작품 | 김정동

궁금증으로부터 찾은 소명 | 김항중 내가 먼저 변해야… | 최준호

28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1) | 구인회

31 그레고리아의 '하느님, 질문 있어요!' | 송향숙

나 눔 33 평신도가 뛴다 | 한국천주교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김현조 회장

36 회원단체 탐방 (마리아사업회) | 김세진

39 김길수 교수의 복자들의 영성

배 움 42 김문태 교수의 인문학 강좌

45 권용준 교수의 성화 이야기

48 가타리나의 영화 속 성경 | 조혜정

51 아가다의 음악편지 | 양인용

53 허연 기자의 명작 속 하느님

56 평신도 양서 이은경

58 영어 미사 암기 포인트 | 김태식

소 식 60 바티칸에선 | 유영훈

64 평신도 뉴스

발 행 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토

발 행 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강성화 미카엘라, 고계연 베드로, 김서영 마리아, 권용준 안토니오,

김문태 힐라리오, 김세진 글라라, 명백훈 프란치스코, 배봉한 세례자요한,

오완수 바오로, 이은경 로사리아,

이지연 마리아(가나다 순)

편 집 장 김선동 루카

제 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 겸손에는 필연적으로 영광이 따른다

따사로운 봄기운이 막 피어나는 지난 3월 5일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2014년 첫 인터뷰 상대로 권길중 바오로 한국평협 · 서울평협 회장을 명동 집무실에서 만났 다. 자상한 인상의 어르신은 넉넉하고도 겸손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포근한 손을 내밀었다.

대담: 김선동 편집장, 정리: 명백훈 편집위원, 사진: 김서영 편집위원



권길중 바오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한국 교회는 세 번째 추기경님 서임, 교황님 방문, 124위 하느님의 종 시복식 등 은총이 소나 기처럼 내리는 시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때 힘겨운 봉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막중한 책임에 비하여 저는 스펙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16개 교 구 평협 회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이 함께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처럼 확희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취 임사에서도 저의 작은 그릇을 교구 평협 회장님 들이 큰 그릇으로 바쳐주신다면 은총이 넘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치해 주실 것을 간청 드렸 습니다."

## 한국평협을 어떤 모습의 공동체로 그리는지 궁금했다.

"기러기들이 10만리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 할 때 V자 대형을 이루는 까닭은, 혼자 날 때보 다 75%의 힘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 다. 앞서 가는 기러기가 힘들 것을 생각해서 뒤 의 기러기들은 소리를 내서 응원하면서 긴 여정 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서로 위치를 바꾸기도 한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긴

서 뒤처지면, 두 마리나 세 마리가 같이 내려와 서 그 기러기가 치료되고 원기가 회복되어 날 수 있을 때까지 돌본다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의 공동체 정신을 우리 평협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평협도 기러기처럼 우 리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일치 안에 함께 가면서 혹 이런저런 이유로 상심한 회원이 발견되면 그 와 같이 있어 주는 가득한 사랑과 돌봄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교님에게 순명하는 평협이 되어야 니다. 해요. 왜냐하면 주교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를 이끌어 갈 권위를 위임받은 사도들이기 때문 입니다. 저는 바오로 성인을 주보로 모셨습니다. 그분의 전교열정도 본받고 싶지만 그보다도 자기 공을 앞세우기보다 늘 수장이신 베드로 사도에게 일치하는 모습을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겸손 아 닐까요? 우리는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님의 겸손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 만 사람인 세례자 요한에게 스스로 청해서 세례 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 으신 요르단 강은 해발 마이너스 400m로서 지구 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지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 립니다.

이렇듯 겸손에는 필연적으로 영광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 여정 중에 어떤 기러기가 총상을 입거나 탈진해 우리 사회, 교회 안에서조차 심화되고 있는 여 러 갈등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무엇보다도 우선 갈등의 구조를 화합의 구조 로 바꾸어야 합니다. 남북통일에 앞서 보수와 진 보 그리고 동서 화합이 우선 이뤄져야 합니다. 작년 여름 장익 주교님께서 평신도지와 인터뷰하 면서 '지금은 입을 다물 때다. 침묵을 할 때다 '라 고 말씀하셨듯이. 말과 글을 삼키는 절제가 공동 체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상대를 비판 하기에 앞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주교님들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제 안을 하고 싶어요. 그 한 가지는 '내가 먼저 사랑 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또 광주의 본 당과 대구의 본당이 서로 주일학교나 청년모임을 일주일씩 맞바꿔 열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부터라도 편견에 따른 오해를 많이 해소 하리라 봅니다.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서로 사랑하기 운 동'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 비교되는 거북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서로 사랑해 본 경험은 그 들의 세대에라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 지 않을까요?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켜켜이 쌓여 교회의 일치, 나아가 사회의 일치를 가져올 것으 로 확신합니다.

또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과 관련해 통일 네트 워크를 구성하자는 어느 위원장님의 제안이 있었 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통일 준 비와 더불어 통일 후 선교를 염두에 두고 선교사 양성까지 구체화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

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과업으로 생각합니다."

## **항국평협의 숙원사업과 재임 중 추진하고 싶** 가톨릭 교리에 대해 질문을 하면, 신부님은 대답 은 사업은 무엇일까?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신앙을 받아들인 독특 한 역사가 있어선지.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는 없는 평협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덜 되었다고 하시며 세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평신도회관이 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교구에서 추 진하는 성지 조성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로 전 세 계에서 수례자들이 찾아올 것이 예상됩니다. 이 이 천사의 모습과 오버랩돼 보이더군요. 신부님 런 때 평신도회관이 있어서 집회, 홍보, 교육, 숙 은 영성체 후 삼투압 작용으로 성체를 모신 우리 소 문제까지 겸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상상해 봅니다. 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간 평신도로서 신앙과 사회생활의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을 찾아 그분의 평전을 만들었으면 합 니다. 평신도들이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 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구실을 할 것으로 봅 니다"

## **가톨릭 신앙과의 만남. 세례부터 신심 및 봉사**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활동, 즐겨 인용하는 성경구절, 취미생활, 건강 비법, 좋아하는 음식 등을 폭넓게 듣고 싶었다.

버님께서 행방불명이 되시어 매우 어렵게 살았 는데 개신교 장로님이신 국민학교 5학년 담임선 생님께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시작된 신앙생활 입니다. 제가 개신교 집사임에도 1963년 가톨릭 께 있기 때문이다."를 바탕으로 평협 모든 단체가

나 이것은 주교회의가 앞장서 주시고 저희가 적 계 학교 논산 대건고등학교는 저를 교사로 채용 해주었어요. 어느 날 이사장 대리이신 고 소요 한 신부님과 사제관에서 토론을 벌였어요. 제가 작심을 하고 성체, 성모 공경, 연옥, 고해성사 등 을 하시는 방식이었지요. 이틀 동안의 토론 끝에 제가 KO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영세를 받기로 결심하고 6개월 동안 예비자교리를 한 번도 빠 지지 않고 들었지만. 신부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다시 6개월 동안 교리를 받으며 매일 미사를 드 령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성체를 모신 수녀님들의 모습 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체를 모시고 싶은지를 물으신 뒤 1년 만에 조건부세례 를 주셨습니다. 영세 초기에는 미사 해설. 레지오 꾸리아 서기, 소년 프리시디움 단장, 지식인 대상 교리교육 보조교사로 활동했고. 24세 때부터 본 격적으로 본당의 사목 활동에 참여하여 오늘날까 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에는 1975년 3월 9일 참여하기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모 든 말씀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평협을 위해서 살 고 싶은 말씀은 마태 18.19-20 "내가 또 진실로 "저는 원래 개신교 신도였어요. 전쟁 통에 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 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요.

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운동은 없습 니다만, 아침저녁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걷기 위 해서 핑계를 찾는 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 톨릭 신자가 된 후에는 청렴과 겸손의 표본이라 는 것뿐, 특별한 건강 비법은 없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별다른 취미가 없어 가족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표양을 드러냈는지, 근현대 한국천주교회사 이야 할까? 그리고 젊은이들의 교회 외면 현상 안에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평신도로 누구 를 꼽을까.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계시지 않은지 늘 기도 중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맛을 잃어 에 용서를 청합니다. 새로 부임하는 곳에는 어디 에서건 내가 신자임을 선언하여 저 자신의 행동 을 구속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를 하느님의 아들 로 보고자 노력했으며,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

는 늘 '주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드 리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에는 대교문화재단에서 주는 교육자 상의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퇴직한 지금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참 스승 다솜 운 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이 운동은 학교 안에 만 연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상호 간의 관계, 사제 간의 관 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돕 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학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질테니까요.

개신교 신자일 때는 장면 박사를 존경하여 따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으니 모든 음식을 감 \_ 랐습니다. 한때 그분을 도와드린 일도 있고요. 정 계 입문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사범 학교 출신이라 결국 교육계에 투신했습니다. 가 생각하여 김홍섭 판사를 존경하고 따르려 노력합 니다. 그분들의 예언자적인 활동과 품위는 그 바 탕이 오로지 참된 신앙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앙인 민음살이와 세상살이에서 평신도는 어떤 모습 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처방을 들어봤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마태오복음 "만 42년을 교직에 있는 동안, 저에게 상처를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밖에 버려진 소금이 아닌 '살맛'을 더하는 소금이 자, 함지박 속에 감춰진 빛이 아니라 등경 위의 빛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 사회의 문화를 복음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평신도의 사명이자 삶

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격언에 '어둡다고 생각 하면 등불을 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가 각 박하고 사랑이 없이 약육강식의 사회여서 어둠이 짙게 깔렸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평신도들의 삶 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은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화살'이라고 끼아라 루 빅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웃과 내가 사는 공동체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면 말로 아니라. 포콜라레에서 강조하는 무지개 생활 즉. 사랑의 7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면 그 표양에 의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교사의 설명을 듣는 일제 학습 을 하면서 질려 있는 학생들에게 교회 주일학교 기도하고, 열심인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황 에서까지 같은 방법으로 교육하려고 한다면 학생 임과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영 들의 흥미를 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주일 적인 요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땅의 재복음 학교에서는 토론과 수용 훈련을 통해 사람은 모 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평협이 되도록 하겠 두가 서로 다를 뿐 그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는 습니다. 것이 아님을, 각각의 친구는 모두 하느님께서 창 조해 주신 존귀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경쟁 을 가르치면 모두가 불행해지죠. 왜냐하면 경쟁 방안을 숙의하게 될 것입니다. 속에서는 예수님을 뵐 수 없거든요."

교황님 방한과 시복식을 신앙 열기와 연결할 의 은사와 짐을 나누듯이 다른 교구 평협들도 방법.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뀐 위상에 걸맞은 평협의 비전은 무엇일까?

"성지 순례, 그리고 성지 조성 활동을 지속적



으로 펼쳐 순교자 현양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 습니다. 한국순교자현양회와 함께 시복을 위한 주임학교에 흥이 없다면 개혁이 어렵겠지요. 묵주기도 124억단 봉헌과 묵주기도의 밤 행사도 꾸준히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냉담자들을 위해

전임 회장님께서 우눔옴네스(Unum O'mnes)이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는 칭찬과 긍정 교육을 사회를 서울로 유치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서 교회 발전

> 중국과 아시아에 파견하기 위한 선교사 양성 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교 구와 나가사키 교구가 결연을 맺음으로서 서로 아시아 국가 교구와 결연을 맺기를 적극 권장합 니다."

# 9724015 115

주 예수 그리스도님,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시어 저희가 교회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어 저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주소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격려해 주시어. 저희 삶 자체가 살아 있는 복음이 되어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게 해주소서.

저희의 혼인 생활에 함께 하시어. 저희가 마리아와 요셉의 모범을 따라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게 해주소서.

주님 나라에 자신을 봉헌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어 소명에 항구하려는 그들의 결심을 굳게 해주소서.

오늘 저희의 모든 행위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아메



#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탄생! 한국 천주교회 세 번째 돌쩌귀\*

주님 세례 축일이던 지난 1월 12일 낮 12시(로마 현지시간 · 한국시간 오후 8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삼종기도를 바 친 뒤 19명의 새 추기경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가 "Andrew Yeom Soo Jung, Archbishop of Seoul (Korea)"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다. 염 추기경이 고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 경에 이어 한국 천주교회 세 번째 돌쩌귀로 탄생됨을 알리던 순간이었다. 말로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동으로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기쁘게 받드는 순간이었다.

정리: 강성화 편집위원 사진제공: 평화신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교황님의 뜻에 순명해 추기경 임명을 받아들였다."며 "교구를 잘 이끌어주신 고 김수화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 경이 헌신했던 복음화 노력에 작은 힘을 보태겠 했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고 소감을 밝혔다.

염 추기경은 봉사와 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아시아 복음 화와 북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화해 와 일치의 길로 나아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해야 할 첫 직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 도 하다. 두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

염 추기경은 "저만 빼고 모두 즐거워하시는데 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자들은 "염 추기경 임명은 한국 천주교회의 경사이자 온 국민이 축하할 일"이라며 크게 환영 염 추기경에게 전화를 걸어 "가톨릭 교회뿐 아니 라 국민의 바람이 이뤄진 것이라 본다."며 추기경 임명을 축하했다.

지난 해 말 2명의 새 보좌주교 탄생에 이은 새 추기경 임명. 일련의 겹경사는 한국교회 복음화 를 위한 새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 추기경 탄생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이 또 그는 "주님의 양 떼를 돌보는 착한 목자가 국제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임명 발표 소식이 날아든 지 한 달여 뒤인 2월 한 분열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교회가 22일(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는 바티칸 성 베드



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염 추기 경과 18명의 새 추기경 서임 미사가 거행됐다.

이날 베드로 대성전에는 한국 순례단 500여 명을 비롯해 각국 축하사절단과 신자 등 1만여 교회의 잔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명이 참석했고. 성 베드로 광장에는 그보다 6배 가 넘는 신자들이 우집해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첫 추기경 서임식을 지켜봤다.

과 충성서약을 한 뒤. 한 사람씩 차례로 교황 앞 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 교황은 새 추기경에게 추 다."고 전했다. 기경 모자인 주케토와 비레타를 씌어주고 오른 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추기경들은 교황 과 포옹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돌아 왔다.

옹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여느 추기 경들과 달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1분이 넘었고 이는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프 위해 주님께 평화와 화해를 청하자."고 말했다. 란치스코 교황은 염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을 매우 사랑합니다."

한국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한 사랑의 표현이 이 말 한마디에 모두 녹아있었다. 이날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된 추기경 서임식은 한국

염 추기경은 "교황께서 평화의 인사를 한 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국을 매우 사랑합니 다.'하고 말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새 추기경들은 서임장 낭독에 이어 신앙고백 도 교황님을 정말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저도 교황님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선포 후 강론(훈시)을 통해 "주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이 것이 우리에게 신뢰와 기쁨의 원천이 된다."며 새 추기경단이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줄 것을 당부 12번째로 호명된 염 추기경은 교황과 깊게 포 했다. 교황은 이어 "교회는 세상 곳곳의 고통에 대한 여러분의 연민이 필요하다."며 "평화를 이 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를

> 또 이날 서임식은 가톨릭교회 역사에서 길이 기억될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이 됐다. 지난해 2월



4 1970년 12월 13일 서울 후암동성당에서 첫 미사 봉헌하던 날 염수정 추기경 (가운데).

28일 사임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 서임식에 참석해 교회 역사에서 두 교황이 함께 한 첫 추기경 서임식이 됐기 때문이다.

로 대성전에서 녹색 제의를 입은 프란치스코 교 황과 새 추기경들이 공동 집전하는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가 봉헌됐다. 서임 축하 미사는 간결하 고 소박했다.

적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 같다. 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복음에 나오는 대로 '예' 할 것은 '예' 하고 시절 우리나라 최초 행려자 무료급식소를 개설한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하고 말하는 것이 추기 경의 태도이며 행동"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이 바 로 참되게 복음을 사는 태도이자 거룩함을 사는 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마음 아파한 염 신부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염 추기경은 이번 서임식에서 로마 구시 을 위한 무료급식소 개설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가지 트라스테베레 지역 성 크리소고노 본당 명 부제급\*\* 세 등급으로 나뉜다.

염 추기경 탄생으로 우리나라 첫 추기경인 김 (현 토마스의 집)의 문을 열었다.

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끊겼던 '2인 추기경 시대' 가 다시 찾아왔다. 두 번째 추기경(정진석 추기 경)이 나기까지 37년이 걸렸지만 세 번째 추기경 은 8년 만에 탄생했다. 2002년 1월 주교품을 받은 염 추기경은 만 12년 만에 추기경에 서임됐다.

염 추기경은 1943년 12월 경기도 안성에서 역한진(갈리스도, 1908~1983) · 백금월(수산나, 1908~1995) 부부 사이에서 5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선조가 염 추 기경의 5대조 할아버지 염덕순(요셉. 1768~1827) 곳이다.

염공의 아들인 염석태(베드로, 1794~1850)공 때부터 가족이 충북 제천에서 옹기를 구워 사기장 서임 미사 이튿날인 2월 23일, 바티카 성 베드 골에 팔며 수계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니 옹기를 보 면 염 추기경을 떠오른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다.

1970년 12월 8일 사제품을 받은 염 추기경은 사제 시절에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을 소리 소문 없이 묵묵하게 도왔던 걸로 알려진 교황은 강론에서 "단지 미소로 인사하는 형식 다. 그의 숨은 일화들을 두 가지만 꼽으면 다음과

> 염 추기경이 1986년 서울 영등포동본당 주임 사실이 알려졌다. 1986년 초 추운 겨울 영등포시 장 일대에서 한 노숙인이 아궁이를 껴안은 채 얼 는 이를 파출소에 연락해 시신을 수습하고 노숙인

그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건물 전세금을 마련 의 사제로 임명됐다. 추기경은 주교급, 사제급, 하고 사랑의 선교수사회에 운영을 맡겨 1986년 8 월 영등포역 쪽방촌에 행려자를 위한 무료급식소







- 6 염수정 추기경이 우리나라 참가단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7 추기경 임명 칙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염수정 추기경

또 다른 일화는 1986년 4월 독재에 항거해 분 신자살을 시도한 서울대 학생 김재호 · 이세진 씨 가 영등포동성당 인근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이다. 병원 앞에서 대학생들과 전경들이 대 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염 신부는 이들을 성 당으로 초대해 추위를 피하고 요기를 하도록 도 왔다. 또 화덕에 연탄불을 지펴 병원 앞으로 가져 가 대학생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했다.

역 추기경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는 '겸손'과 '온화함', '친화력'이다. 주교품을 받은 후 에도 동기 사제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고, 후배 사 제들과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 며 '든든하고 편한 형'이 돼주고 있다. 온화한 성

역 추기경은 2012년 5월 10일 베네딕토 16세

월 동안 교구를 새 복음화 시대에 걸맞게 쇄신하 고자 다양한 사목활동을 펼쳐왔다.

- ◆ 맠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 ◆미사로 하나가 되는 신앙
-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등 5가지 신앙생활 실천 방안을 제시해 지금까지 교구 내 사목현장 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뚝심으로 우직하게 당면 과제들을 찬찬히 돌파 해가는 그의 성격대로 염 추기경은 일선 사목 사 제들과 소통하고 본당 사목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새 복음화를 위한 신자들의 재복음화'를 요청하 격이지만 원칙 앞에서는 고집스러워지기도 한다. 는, 양 냄새 나는 사목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순교자 후손인 염 추기경은 한국천주교 최대 해 6월 25일 교구장좌에 착좌했다. 이후 1년 6개 로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 밖에

교구 처음으로 사제단 전체 모임을 열어 사제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힘썼으며, 교구 행정체제를 효 율적으로 개편하고 '가톨릭생명윤리자문단'을 발 **족했다** 

## 용어 설명

- 주케토(Zucchetto): 주케토는 추기경이 머 리꼭지에 덮어 쓰는 둥근 빵모자다. '주케토 (Zucchetto)'는 조롱박을 반으로 잘라 엎어 놓은 모양과 비슷해서 '작은 조롱박'이라는 뜻의 이탈 리아어다. 예전에는 사제나 수도자들이 머리 가 운데 부분을 삭발하고 나서 세속에서 죽었다는 뜻으로 덮어썼던 모자였으나 지금은 주교들이 쓴다. 교황의 주케토는 흰색. 추기경의 주케토는 진홍색, 주교의 주케토는 자주색이다.
- 비레타(Biretta): 서임식에서 교황은 새 추기경 들에게 주케토를 씌어주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사각형으로 된 진홍색 모자를 덧씌웠는데, 이 모자가 비레타(Biretta)다. 전통적으로 성직자들 이 많이 썼으나 요즘에는 주요 예식 때만 쓴다. 추기경의 비레타는 진홍색, 주교들의 비레타는 자주색, 사제들의 비레타는 검은색이다.

'홍의 주교'라는 별명처럼 추기경들은 모자를 포 함해 모든 복장이 진홍색이다. 진홍색은 예수 그 리스도의 성혈을 상징하는 색으로 추기경의 고 서 교황을 보필하고 있다.

귀한 품위를 드러내는 표지다 자신을 용맹하게 헌신해 그리스도교 신앙과 평화. 하느님 백성. 가톨릭교회의 자유와 복음 선포를 위해 헌신하 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추기경 반지: 교황이 추기경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준 추기경 반지는 존엄성의 상징이자 베드 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과 갖는 특별한 친교를 의미한다. 즉 교황과의 일치와 교황청과의 유대 를 상징한다.

#### 전 세계 추기경 수와 역항

전 세계 추기경 수는 218명이다. 아시아의 추 기경 수는 한국교회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다. 전 세계 추기경 가운데 교황 선출권을 가진 만 80세 미만 추기경은 123명으로 유럽이 62명 (이탈리아 30명)으로 가장 많다. 아시아는 13명으 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많다.

대표적인 역할은 교황 선출이다. 그러나 교황 유고 시 만 80세 미만 추기경들만 참여할 수 있 다. 만 80세 이상의 추기경들은 신자들과 함께 기 도로만 참여한다. 또 추기경단을 이뤄 단체로 교 황을 보필하고 개별 직무를 통해 교황을 돕는다. 교황청 핵심 부서장 직책은 일반적으로 추기경이 맡는데 염수정 추기경은 현재 서울대교구장으로

# 아직은 주교 수단 입는 것도 어색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어 지난 2월 5일 주교품을 받은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53)를 재의 수요일인 3월 5일 저녁 서울대교구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소명(召命)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고 웃더니. 물부터 한잔 따라 건네주었다.

대담 · 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사진제공: 가톨릭신문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교회 신 문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기사를 읽어보지는 않았어요."라 며 또렷한 목소리로 하느님의 부르 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돌아가신 한희동 신부님 어머니 일러스트 송재순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약현성당 가 까이 옆집에서 담에 문을 내 서로 왕래하며 사셨 어요. 성탄과 부활 밤미사를 하고 오시면 음식을 나누곤 하셨는데. 그때 저희 집은 신자가 아니었 어요. 4남 2녀 가운데 제가 막내인데, 그런 계기로 저희 형님들과 누나들이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1960년대인데.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서인지 웅 웅 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주교회의는 1965년부터 미 사 때 신자들이 함께하는 부분은 한국어를 사용 하기로 했다.) 교리반에도 갔는데 너무 어려서 어 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어렸 을 때 성당을 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 가정 환경 조사 설문지에 종교를 천주교라고 썼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서울시립소년소녀 어린이



준비하면서 연습한 것이 라틴어 창 미사 곡이었어요. 영원한도움의성 모회 수녀님들이 같이 공연을 했는 데, 공연 끝나고 정릉 수녀원에 놀 러가기도 했어요. 집이 중림동에서 역촌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러다가 6학년 때 서대문으로 이사를 왔어요.

등 · 하굣길에 서대문성당 앞을 지나다니는데 성모상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 1975년 스 스로 성당에 찾아가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수녀님 한테 예비신자 교리를 배우고 8월 15일에 최석호 신부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 당시 사진을 보내왔다며 구형 폴더식 해 드폰을 열어 예비신자 교리를 가르친 수녀님과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이 아니라 사진 확대가 안 되는데 수녀님이 굉장 히 미인이에요."라며 웃는다.)

중등부 활동도 했죠. 신심서적, 성인전에 관심 을 갖다 보니까 성인들이 다 사제가 되려고 하고 신학교 얘기가 나와요.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전을

<sup>\*</sup> 돌쩌귀 추기경을 뜻하는 라틴어 카르디날리스(Cardinalis)는 돌쩌귀를 뜻하는 '카르도(Cardo)'에서 유래됐다. 옛날 문짝을 문 설주에 붙이고 열고 닫으려면 돌쩌귀가 필요했다. 돌쩌귀처럼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추기경이라고 부 른다. '추기(樞機)'가 중추가 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卿)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다.

<sup>\*\*</sup> 주교급, 사제급, 부제급 추기경 주교급 추기경이라는 칭호는 수석 추기경, 동방 가톨릭교회 총대주교들이 추기경단에 영입 될 때 받는다. 사제급 추기경은 보통 지역 교회 교구장 주교들이 받는다. 염 추기경은 서울 대교구장이어서 사제급 추기경에 속한다. 부제급은 교황청이나 바티칸 시국의 주요 부서에 서 직무를 수행하는 추기경들에게 부여된다. 부제급 추기경은 10년이 지나면 사제급 추기경 으로 옮겨갈 권리가 있다.

돌려가면서 읽곤 했죠. 중학교 2학년 때 미사 복사 를 하고 싶었어요. 서대문성당에는 복사가 없어. 새벽에 서대문에서부터 정동, 덕수궁 뒷담, 시청 앞. 소공로로 해서 명동으로 뛰어다니며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제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소주일이 되면 소신학교가 하는 일일신학교 를 갔는데, 백일장 글짓기에서 입선이 되어서 소 년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옛 신학교 성당에서 성 체강복을 할 때가 기억이 나요. 제대가 높고 고통 스러운 모습을 한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는데. 분 향 연기가 피어오르던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떠올 라요. '내가 올 곳은 여기다.' 생각하고 중학교 2 학년 때 신학교에 들어갈 결심을 했죠.

또래 친구들과 신학교에 가자고 의기투합을 해서 학교 공부가 끝나면 성당에서 만나 같이 공 부를 하며 지냈어요. 불광중학교 3학년 때 봉희 만 신부님이 신학교 입학 추천서를 써주셔서 아 버지 신부님이 되셨지만 실질적으로 성소에 영향 을 주신 분은 최석호 신부님이시죠. 그분이 강론 을 하시면 어린 나이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중학교 3학년 여름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 지셔서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그런 면은 있었 지만 신학교 들어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막내니까 오히려 쉬웠죠. 집에서는 자기가 나중 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 셨는데 끝까지 간 거예요. 철이 난 시절에 신앙적 인 것으로 확 입혀졌기 때문에 딴 데로 가지 않고 교가 됐다고 해서 무슨 보장을 받은 것을 아니기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부 르신 거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네요.



야말로 '상뚜스(santus)'. 아주 모범적이라고 해요. 대신학교 때까지도 그랬다고 하고. 인간적인 갈 등이라든가 위기. 시련 같은 것들은 오히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찾아왔어요. 본격적으로 성소를 따라간다는 것이 뭔가 고민했는데, 그때는 잘 몰 랐고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과정을 겪 었구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느님의 부르심. 그것은 한 번에 끝나거나 완 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계속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생각하는 데, 위기는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완결된 게 아니라 항 상 열려 있기 때문에, 오시는 하느님의 요청에 어 떻게 응답할지는 늘 나의 선택이고 내 몫이니까 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사제가 되었다고 해서 또 주 때문이죠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진다는데, "이래서 하느 소신학교 때의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를 그 님이 나를 주교로 부르셨구나."하는 체험을 듣고

#### 싶다고 하자 이야기를 이어간다.)

학생 때 독일로 공부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사제품을 받고 바로 또 나갔어요. 사제라기보다 공부하느라 매일 쫓기는 학생이었죠. 유학생활을 만 10년 하고 들어와 본당에서 7개월 보좌생활을 하고. 1999년에 신학교에 들어가 전반부는 신학 생 양성에, 후반부는 신학교 업무에 신경을 쓰다 가 2008년에 통합사목연구소로 나왔죠. 신학생과 같이 살면서 하느님께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교품을 받은 것도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 다. 지난해 12월 30일 주교 임명이 발표되고 31일 교구청 종무미사 때 강론을 하는데 조규만 주교 님이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어떤 신부가 주교 임명을 받으러 교황대사관에 갔는데, 자기는 나 이가 어리다. 일을 모른다. 덕이 없다고 했더니.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는다. 일은 로마에서 한 다. 주교 중에 덕 있는 사람 본 적이 있느냐고 하 셨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이야기 같다고 느꼈어요.

제가 '노(No)'를 못한 이유가. '노'를 하려면 설 명을 길게 해야 하는데 영어가 짧아서 지금 이 자 리에 있다고 하면서, 어쩌겠느냐 받아들이고 열 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었 어요.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게 왔는가? 정 말 모르겠어요. 교황대사관에 가기 전까지는 안 한다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막상 내가 이것을 '예 스' 하는 것도 두렵지만 '노' 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수락하고 난 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 로 묵묵히 발 닦는 일. 이는 종이 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맏 겨주신 직무를 그 런 식으로라도 한 다면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교로서 교구 의 모든 신부님들 과의 관계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 는데, 결국 신부 님들에게 뭔가 보



탬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봉사 할지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늘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좋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들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신부님들에게 해주는 것을 주교가 해주지 않으 면 누가 대신해 주기 어려워요. 주교가 채워주어 야 할 몫이, 부분이 있기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해 야 할지 보여주시겠죠.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이나 포부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사목 교구장대리를 맡았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할 몫 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결국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에 게 힘이 되어다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아직은 주교 수단 입 는 것도 어색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처지 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 각이 강해지고 구체화되고 감을 잡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산다는 것…

**김의철 스테파노** 방학동 성당

저희는 20여 년 전에 ME를 다녀온 부부입니 다. 그리고 저희들은 5년 전부터 일곱 부부들이 매월 한 번씩 테마여행을 다니는데 가까운 이웃 들이기에 함께 친목을 다지면서 어떻게 하면 공 동체 안에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며 부부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떠나지요. 또한 반딧불이 빼먹지 않고 매월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스케줄을 미리 정하여 주로 주말을 이 용해 성지를 중심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트레킹을 하는데, 어떤 때는 소릿길을 찾아 청산도 뱃길을 가고, 또 어떤 때는 이름 없는 옛 시인의 무덤을 찾아 먼 길을 떠나기도 하지만, 송년이나 신년에 는 음악회에 가거나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 년에 한 번씩은 수 도워 피정을 다녀오곤 합니다. 매월 함께하는 그 시간들도 부족해 서로가 보고 싶다며 수시로 번 개모임을 갖기도 하지요. 아무튼 좋은 이웃들과 함께하며 부부 사랑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여행을 떠날 때면 각자 집에서 먹거

9단들의 빼어난 솜씨로 만들어진 음식은 그 어느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보다도 맛이 있습니다. 그 리고 봄에는 봄처녀가 되어 나물을 뜯기도 하고 오디도 따고, 여름엔 냇가에서 소라와 물고기를 잡으며 온 들판을 쏘다니는 우리들은 정말 동심 가 날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기타 음률에 맞춰 즐기는 포크댄스와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작년 봄에는 아주 멋진 이벤트가 있었는데 우 리 모임 회원 중 한 분의 따님이 결혼식을 할 때 엄마 아빠들이 축가를 불러주기를 원해 6개월 정 도의 연습으로 진도 아리랑을 개사하여 멋진 유 니폼을 입고 축가를 불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심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랑 신부 납신다…."

"너희들이 자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들 딸 주 님 안에 예쁘게 키워라…."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 리를 준비해 오는데, 나무그늘 아래 펼쳐진 주부 랑 우리 가락에 맞춰 신랑 신부와 모든 하객들이 <sup>┗┗</sup> 부부의 사랑이란 50대50이 아니라 80대20입니다. 최소한 받는 것의 4배를 더 주어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

함께 어울려 박수를 치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 던 때의 추억은 지금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게 할 정도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우 리들이 결혼식 축가 데뷔 무대를 갖게 된 것이지 요. 사실 그때의 이벤트는 작년에 우리들의 화두 를 파격으로 정한 덕분이었습니다. 엄숙하고 거 룩한 성전에서 어깨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흥겨 유 우리 가락으로 축가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파 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카페에 매일같이 성경말씀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신앙 이야기나 좋은 글을 올 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기행문과 동영상을 올려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차곡 차곡 책을 엮듯이 우리들이 살아온 궤적들을 하 나 둘씩 모아갑니다. 사실 이제껏 한 번도 빠짐없 이 트레킹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열심 히 참여했기 때문이지만 누구보다 보람으로 이 모임을 주관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모임을 통해 이웃 사랑, 부부 사 랑도 실천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님 안 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들 이 모인 것이기에. 매 순간을 가슴 벅찰 만큼 멋 지게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한 삶 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모두들 웰빙. 웰다잉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만 저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 을 해 봅니다. 이른 봄 우아하고 화사하게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피는 목련을 보면 웰빙은 저런 모 은 모습으로 나를 찾는 길임을 묵상합니다."

습이 아닐까 하다가도 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지 저분해서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무궁화 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떨어질 때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로 곱게 또르르 말아 자신을 깨끗이 정리하고 떨 어집니다. 마지막을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 을 다소곳이 접어 웰다잉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무궁화처럼 이제 이순의 후반부에 접어든 내 삶 이 진정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무궁화 같은 모 습이기를 바랍니다. 진정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꽃이 필 때의 목련처럼, 이 세상을 끝낼 때의 모 습은 무궁화처럼 마무리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일곱 부부가 매일같이 카페에 올리는 글귀 하나하나가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힘이 되며 우리들 서로에게 멘토로서의 역 할을 충실하게 하지요. 혹여 잠시라도 주님 곁에 서 떨어져 있을 양이면 셰어링을 통해 함께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 같은 가치관을 가 지고 함께 정을 나누며 산다는 것은 트레킹을 통 해 얻어지는 행복 이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되 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모임 한 분이 새해 첫날 카페에 올린 글 을 소개합니다.

"청마의 새해에 뜬구름 잡는 허황됨보다 생각 하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온화하고 신중하 며 올바르게 시작하는 마음. 삼백 예순 날 이어지 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 더 사랑하 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두가 하느님 닮 우리는 늘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뿐인 태양만큼 밝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단 한 사람 을 진정으로 아는 것만큼 삶에 기쁨을 주진 못합 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랑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 다. 혼자 걸어가는 길은 외롭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은 즐겁습니다. 이제 숨 가쁘게 지쳐 살아온 나 날들을 세속의 큰 욕심에서 벗어나 내 옆에 그림 자처럼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사람을 깨달음으로 얻은 이 여정에 늘 함께 손을 잡고 가고 싶습니 다. 큰 욕심 없이… 큰 그릇이 많은 것을 채울 것 같지만 사실은 빈 그릇에 담을 것이 더 많은 법이 니까요.

우리들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 사랑 안에서… 샬롬!!!

는 부부들의 모습에서 언제나 나를 되돌아보고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며 깨우쳐 나가는 이 여정이 있기에, 우리들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바로 지금, 의 찔레꽃(모임의 이름) 향기에 취해 푸성귀 같은 아침이 밝아오는 지금 이 글을 씁니다. 아니 오늘 은 비록 궂은 날일지라도 내일이면 아침햇살이 뉴부시게, 새벽 공기가 푸성귀처럼 풋풋하게 새 아침을 맞게 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서로를 마주하며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 찔레꽃님 들의 사랑의 속삭임은 이제 대부분이 이순의 나 이가 되어 계절처럼 곱게 물든 가을이 지나 흰 눈 이 하얗게 쌓여가는 겨울임에도, 같은 가치관 속 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부부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트레 킷과 더불어,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사랑의 밀어 는 계속 되겠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





임재홍 바오로 동판교 성당

# 신앙의 대물림은 결혼 성소자들의 소명이다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 억할 수 없지만 그때의 기억을 열심히 떠올려 봅 니다. 큰아이의 지금과 제 자신의 그때를 비교해 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저 의 절대적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은 제가 결혼한 후 제가 애의 아빠가 된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는 그저 무서운 분이셨죠. 그런데, 막상 제 가 애의 아빠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넣어 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 습니다. 물론 아빠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 터 받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면서, 제가 아들의 입장에서의 아버지가 아닌 아빠의 입장에서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 다. 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셨던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삶과 신앙의 든든한 사표 로서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축 복이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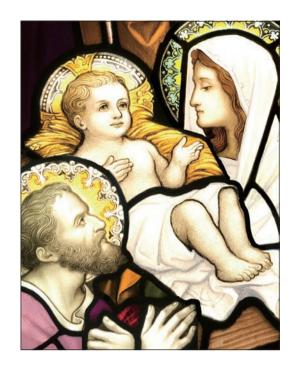
큰아이는 지금까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착 한 아이지만, 이제 곧 가치관 형성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기에. 아

빠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합 니다. 냉담으로 보냈던 저와는 달리 될 수 있으면 청소년기를 성당에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 니다. 큰아이는 벌써 저에게 하느님의 존재와 인 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툭툭 던집니다. 과연 얼마 나 성찰한 후 하는 질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 주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성당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14세인 큰아이가 한번쯤 하느님의 존재 와 삶의 신비에 대하여 다양한 철학자들의 고찰 을 거치고 다시 돌아와도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 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14세 때 신의 존재에 대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그 하여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을 했을까 유추해 보 며 꼭 그것만이 제일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는 생각도 듭니다.

> 부모님이 제게 보여주었듯이 부부가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 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 다면 좋겠습니다.

> 어릴 때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들 이 해야 할 효도는 다 했다고 언젠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기



까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들에 게서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것은 후각적인 것이 었는데, 즉 아기 냄새였습니다. 이 아기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계속 아기를 안고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컸을 때에는 아빠하고 레슬링 을 하자며 이리 안고 저리 안으며 장난도 치며 스 주는 게 다른 무엇보다 앞서는 소명일 것입니다. 킨십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쯤 되니 아기 냄 새가 없어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힘이 아빠가 한 손으로 제압하기 힘들 만큼 자랐습니다. 그 순 간의 행복감과 아이가 건강하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하느님께서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더 큰 뜻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과분한 하 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가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아이가 저의 이러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상상해 봅니 다. 이런 느낌을 공유하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이

**1** 제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온전하게 자식들에게 전하고 자식들도 또 제가 한 것처 럼 그들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다른 무엇보다 앞서는 소명일 것입니다.

아이 역시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것을 깊이 공 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해 나가는 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정의롭 고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내와 나 누었습니다. 일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 니고 가능한 한 재물과 권력까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하느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바른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 은 신앙을 온전하게 자식들에게 전하고 자식들도 또 제가 한 것처럼 그들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

아내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을 하 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며 극복해 왔습니 다., 저도 착한 아내와 애들로 구성된 더없이 행 복한 가족,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신 부모 님이 계시는 축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기적 과 같이 내 주위에 머물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 서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오늘날과는 달리, 보다 긍정적이고 모든 이가 행 복한 세상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소명은 그리스도의 작품

김정동 사도요한 가톨릭독서아카데미 회장

묵상하고 형제들과 경험담을 나눕니다. 공동체에 모이는 형제들은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평신도들입니다. 기 업 CEO도 있고, 회사원, 공무원도 있습니다. 노 동자, 퇴직자, 중소기업 사원 등 직업 종류도 다 양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경험담은 주로 가정에 서, 직장에서, 교회 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 을 실천하며 기쁘게 사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에는 성공적인 경험담도 있고 실패한 이야기도 있습 니다. 어떤 경험담은 비중이 크고 어떤 것은 아주 사소합니다. 물론 크고 거룩한 경험담은 모두에 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경험담에도 모두들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다 하느님의 작품이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5월 '가톨릭독서아카데미'가 창립하였 습니다. 1년 남짓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저는 이 단체 초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역량에 맞 지 않는 직책을 맡게 되어 내심 크게 부담스러웠 습니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 해야 할까 등 걱정거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

매주 저는 포콜라레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다. 두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보다는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라 말인가 하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 러나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 다."는 복음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즉 시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하고 기쁜 마음으 로 "네."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 그 후 이 단체 회원인 가톨릭 신자 언론인들이 '가톨릭 독서콘서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강연자 섭외 를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운영 및 기획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셨 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가톨릭독서콘서트' 의 성공을 위해 큰 사랑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마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행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때는 청중이 그 큰 불광동 성당을 가득 채웠을 뿐 만 아니라 넘치기도 했습니다. 열기 또한 매우 뜨 거워졌습니다

작년 5월 23일에 있었던 '창립 1주년 기념 가 톨릭독서콘서트'에는 주교회의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천리 길을 마다않고 달려오시어 특강 자세로 일치를 위해, 사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봉 주교님을 비롯 한 수많은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들(신달자, 한 수산, 정호승, 이기영, 한비야, 공지영 선생님 등) 께서 강연회에 적은 강연료를 받고 기꺼이 참여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서로의 눈을 바라보 며 사랑의 결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예산도 한푸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으나 조금도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후원자이신 예수님과 성모님 이 계시니까요. 독서콘서트의 열기를 어떻게 전 해 들었는지 몰라도 몇몇 신부님께서는 가톨릭독 서콘서트를 자신의 본당에서 하고 싶다며 노하우 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부터는 대구대교구를 시 작으로 춘천교구에서도 독서콘서트를 열기로 계 획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다른 종교로, 다른 나라로도 전파될 수 있지 않을 까 기대를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까요? 바로 독서 를 통해 인류가 하나되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 는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맨 처음 담당 사제이신 김민수 신부님으로부터 '가 톨릭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독서운동'을 하자 고 주창하시면서 '문화 복음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훌 쩍 지났습니다. 김 신부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 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렇게 큰 사업의 결실이야말로 복음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백 배 의 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깨어 있는

는 걸 느낍니다. 모든 순간마다요. 청년시절부터 '모든 이를 하나로'의 이상을 살고 또 구현하고자 했던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독서', 즉 책을 통한 당신의 구원사업에 저를 참여하게 하신 것 같습 니다.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견지했 기 때문이지요. 포콜라레 운동의 창시자 끼아라 루빅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만이 나의 성 소'라는 자세로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 로 실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실천하 는 삶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이고 바 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을 업으로 선택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책을 통해 하느님 나라, 하느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성소이자 소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톨릭독서아카데미'에서 독서 콘서트 등을 통해.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의 구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야막로 저의 존재 이 유, 또 다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하느님 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순절 시기를 지내며 '내 뜻이 아니라. 순전 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 궁금증으로부터 찾은

김항중 사도요한 대전대 인문예술대학 교수

길거리를 지나가다 높은 양철로 가림막을 한 곳을 보면 금방 신축공사장임을 알게 됩니다. 그 런 곳을 지나치다보면 어떤 용도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지 궁금하게 마련이지요. 그럴 때면 우 리가 주위를 찾는 것이 있지요.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공사장 입구 근처에 붙어 있는 '공 사개요' '조감도'이지요. 그곳에는 건축주와 건축 규모. 시공기간 등과 함께 완성 후의 멋진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생도 건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과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소질,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 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경험을 쌓으며 완숙해져 가는 것을 보면 맨땅 위에 지워지는 건물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조감 도'를 가지고 차근차근 자신의 생을 만들어 갈까 요? 제 자신도 그러했고. 제가 만난 수많은 청소 년들을 보아도 조감도에 해당하는 삶의 목적, 방 법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반과 이과반으로 나눌 때 전기와 라디오 같은 것을 잘 고친다고 이 과반으로 갔고. 대학교 진학때는 취업이 잘 되는 공과대학을 그것도 당시 중동 건설 붐으로 건축 전공과 토목전공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할 때여서 토목공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지 금 제가 학생들에게 교육학과 상담심리학을 가르 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지요. 솔직히 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바 로 군에서 제대하고 3학년 복학할 때였습니다.

취업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전공수업을 들면서 제 적성과 관심과는 전혀 다 르다는 것을 알고 힘들게 고민하며 다녔지요. 그 때 유일하게 위안이 되었던 것이 바로 본당에서 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말이 교리교사지 아 이들을 좋아하고 놀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동아리활동을 한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전부였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 들이 좋았고,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이 부 러웠습니다. 교리반 아이들 중에는 어리지만 매 사에 아주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들도 눈에 띌 때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궁금증도 갖게 되었지요.

는 일이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소명의식'을 느끼고 자 신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자주 경험한다면 그것 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제 어린 시절은 학교 생활기록부 '행동특성'란 에 담임선생님이 적어 놓으신 것을 보면 어떤 모 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들 습의 학생인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성 격을 잘 나타내는 특징은 '온순, 착함, 예의 바름, 소극적, 비사교적, 수줍음을 탐, 자신감이 없어 보임, 열등감이 많아 보임'이라는 단어들로 초 · 중 ·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 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학급에서 아무런 일탈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학교에 다니던 저는 공을 바꿀 수 없어 선택의 여지없이 토목전공으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안으로는 로 졸업하게 되었지요. 당시 대학원도 동일 학부 온통 혼란과 회의가 자리잡고 있었던 셈이었지 요. 심리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고 일상생 활에서 자율적이거나 적극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 로 부모님과 학교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순 종하는 일이 전부였던 셈이지요.

학을 졸업했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럭저럭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분 명한 것은 제 스스로 만족감이 부족하고 여전히 매사에 소극적이고 위축된 채 살아가지 않았을 까 싶습니다. 행복지수가 매우 낮을 것이 분명합 니다.

군 제대 후 대학 3학년에 복학하면서 비로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해야겠다는 절박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성격 에 대한 깊은 회의, 주일학교에서 경험한 아이들 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은 바로 전공을 교육학으로 바꾸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나름 의욕 과 의지만 있으면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면서 자 연스럽게 전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열별로 입학과 졸업을 하는 터라 자유롭게 전 출신이 아니면 입학하기 어려웠던 만큼 제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 봅니다.

저의 그런 뜻을 알고 계셨던 큰형님 신부님께 서 지인 신부님을 통해 소중한 유학정보를 주셔 만약 지금의 전공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고 대 서 우여곡절 끝에 파리 5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 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진로의 전화이 크나 아가고 있을까 종종 자문해 봅니다. 아마도 제 큰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고, 교육학과 심리학은 성향에 비추어 토목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저 자신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저 나름의 '소명'

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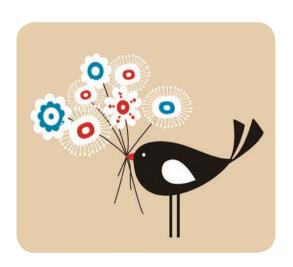
주님께서는 우연 같지만 지금의 제가 있기까 지 늘 함께하시면서 인도해주시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지니고 살던 부 일이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인 대학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불러주셨고, 그 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 경험을 통해 제 자신과 '자녀교육'에 과심을 갖게 도 아닙니다. 하셨고. 어려운 유학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제 대 학시절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 을 하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특히 저처럼 자신 의 적성과 흥미. 관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늦게나마 자 신의 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격려하 고 지지하는 일은 제게는 참으로 뜻 깊은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소명'에 대한 또 하나의 제 응답은 바로 부모 님 교육(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입니다. 청소년 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 조감도'를 어려서부터 그 리고 그에 따라 건물을 지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 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무엇을 위한 교육' 이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고민하시도록 돕는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또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 에 취업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공식을 지니고 있 습니다. 이 공식에서 벗어나면 낙오자라는 느낌

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사실 초·중·고등학교 을 갖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힘들게 사 때부터 하느님께서 이미 제게 '소명'을 주셨을지 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 시대 를 살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 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름의 '소명'을 발견하

마음이 부유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소명의식' 을 느끼고 자신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자주 경험 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 내가 먼저 변해야…



최준호 요셉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부장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기흥에 소재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버스 와 자가용 승용차 외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같은 부 서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와 하루씩 번갈아서 서 로의 자동차를 함께 이용하는 카풀(car pool)을 했 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 운동도 같 이 하게 되고, 낚시도 같이 다니게 되고, 술도 같 이 마시게 되는 등 무척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재미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다투 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10분만 늦게 나 가도 아침부터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정치, 경제, 시사 등 살아가면서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묘한 불일치가 생각보다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가 스트 레스를 받으면 선배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 고, 반대로 선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덩달 아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배가 네 살 위라고 모든 의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 도 자식이 세 명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카풀 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자주 있었지요. 또는 이사 를 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불일치라는 고통에서 어떻 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피정 때마다 자주 귀 아프게 들었던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 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는 왜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더욱 왜소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리 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모님께 지혜를 주시기 를 청했습니다.

출퇴근을 같이하는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신 이웃. 즉 주님이시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 로는 안 되어서 몇 달 동안 그분에게 지향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 퇴근을 함께하는 그분이 바로 가장 가깝게 계시 는 예수님이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였습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 니다. 그리고 또 넘어질 때마다 바로 이 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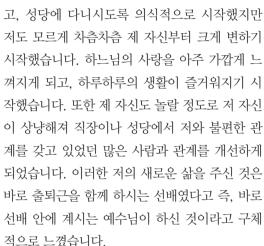
잘 살아야지 하고 그분과 일치하도록 노력했습니 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도 저에게 전 과 달리 부드럽게 대하시고 의사결정을 할 때마 다 저에게 양보를 하시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 니다. 너무도 신기했고. 그때마다 하느님의 사랑 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 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형제님을 통해 백배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선배의 아내는 저와 같은 성당에 다니시며 반장, 레지오 활동 등을 매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배 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좋으신 분이지만 그때까 지 성당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혼 자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나오실 때마다 인간적 인 생각으로 슬펐으며, 주위의 이러한 외짝 교우 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분 에게 어떻게 해서 참사랑이신 하느님을 알게 해 드릴까 하고 고심했으며, 가끔 "성당에 같이 다니 시죠?"라고 말씀드렸으나 바위에 계란 치기 결과 만 되풀이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중. 어느 날 마태오복 음 5장 16절의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라는 말 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선교하기에 앞서서 무엇보 다도 제 자신이 먼저 하느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 으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침에 만나면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아주 기쁘 게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하나 스치 고 지나치던 그분의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려 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내는 속이 안 좋은 저를 위해 구기자차를 페트병에 얼려서 매일 아침 출

근할 때 싸 주었는데 선배 가 마실 것도 같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는 그분과 편안한 관계를 갖



그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희 동네의 수사신부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당구도 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선배께 같이 가 자고 제의했었는데 흔쾌히 그날 함께하시어 즐거 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분이 예비자교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하느 님께 즉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선배와 대화하는 내용에는 성당 일이나 하느님에 대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 지했고, 아침에 제가 먼저 그분을 깨워 드리려고 전화를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선배와의 작은 경 험으로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 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 었고 이러한 깨우침을 주신 하느님께 한없이 감 사 드립니다.



#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1)

죽음에 관한 小考



#### 1.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은 생명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한다. 모든 것과의 단절이 라는 점에서 죽음은 개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중 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죽음은 누구나 언 젠가 맞이하는 자연적 현상으로 삶의 마지막 종 착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한 과학적 사실, 생 물학적 현상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 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신비적 상상이나 철학 적 논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라면, 죽음에 대한 소 또한 달리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여 모적인 상념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감히 죽음을 백안시 하고 언제 닥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 앞서게 마련이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불안하고 를 취하기라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노력 두려운 것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죽

해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죽음 의 문제에 접근하기를 기피하고. 되도록 은폐하

#### 2. 죽음에 대한 공포

어떤 이들은 죽음을 통해 평화로운 천상의 안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어떤 이들 은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인 자연에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믿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 로 절망하거나, 죽음이 당장 도래할 것은 아니고, 애써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고 물리치려 한 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미치면 불안과 두려움이

해 관찰한 죽음의 겉모습과 죽음이 남기는 상실 감이라는 결과 때문이다.

통해, 혹은 어떤 이의 예견된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간접적으로 혹은 가에 따라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과 상실감, 위협 마치 나의 죽음인 것처럼 절실하게 체험하기도 의 정도도 다를 것이다. 한다. 결국 우리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 다 훨씬 가까이 있으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고유한 사건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다. 나 사실을 확인하게 되다.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전개에서 죽음처럼 확 실한 것은 없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 할 수 없다. 그렇게 확실한 것이 죽음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죽음을 체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 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닌 타인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 일 뿐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며, 아무 리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죽어가는 당 사자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죽음에 대한 무지와 불가피성이 우리 에게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다.

## 3. 죽음의 불가피성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것이 분명하며, 언 제인가 나에게도 현실화될 것이라 짐작한다. 그 런데 참으로 나의 죽음은 확실한 것인가? 내가 죽 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나는 지금처럼 존재하지 않 는다. 적어도 현재의 존재형태로는 더 이상 머무 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모든 것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경험한 타인의 죽 가 하는, 죽음을 보는 관점에 따라 좌우된다.

음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타인의 죽음을 통 음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끼 침에는 틀림없다. 또한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다고 보아 가까우 지인의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을 모고 아이 아니다. 그릇된 죽음관은 삶을 왜곡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얼마나 집착하는

> 죽음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개별적 인간의 의 삶을 타인이 대신 살아 줄 수 없듯이 나의 죽음 또한 나의 것일 수밖에 없다. 나의 삶과 결코 별개 일 수 없는 것이 나의 죽음이 아닌가. 이러한 죽음 의 문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죽음이 무엇인가 묻는 이는 죽음이 발생하는 순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죽은 후 인간은 어떻 게 되는지. 죽은 자는 사후에 어떤 형태로 어디에 존재하며, 또한 어디에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 해서도 물을 것이다.

> 인가은 자신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은 삶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죽 음이 어느 시점에는 현실화되리라는 것을 인식하 고 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방 향을 결정한다. 죽음에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인간에게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희망은 있는 것 인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물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 막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생 전체에 걸 쳐 이어진다. 우리가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 은 그만두며, 어떤 목표들을 가지며, 어떤 것을 귀중하다고 여기며, 어떤 것을 하찮다고 여기는 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 살아가는지 하는 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수가 우리는 더 이상 존재 를 취해야 한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부터 우리는 죽음에 관해 알게 되는가? 우리가 가까운 로 회귀하여 가능한 모든 사회적 환경과 자신 사 주변에서 체험하 타인의 죽음으로부터 미루어 우 이의 불변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우 리 자신의 죽음을 추론하는 것인가?

가운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시 간적 한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인간은 눈앞의 매순간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성 과나 실패의 집과도 씨름하는 존재이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아직도 열려있는 비결정적인 미래가 펼쳐져 있다. 미래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확실성 에 의해 한정되다.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항시 든 가능한 한 뒤로 미루어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시간성에 대해 앎을 의미한다. 자신의 시 간성을 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앎을 의미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강박관념의 형태로든, 죽음의 절박성을 어떤 방 법을 동원해서라도 무해화하기 위한 노력의 형태 간 존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지평에 던져져 살 모든 인식이 시작된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죽음 에 임해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홀로 자 신의 죽음을 맞이하며 홀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 다. 죽어가는 사람 각자가 홀로 부름 받는. 그리 하여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죽음의 절대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나 무의미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 모든 것을 요약하는 전체로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윤리학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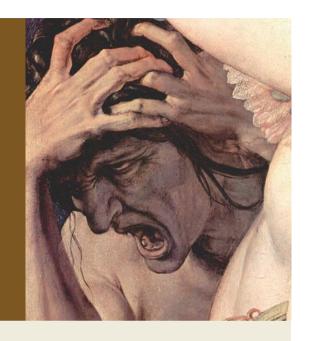
죽음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 서의 자기 삶에 대한 종언을 고하고, 마지막 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리는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다양한 모든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국음에 관해 알고자 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고자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가능 한 한 계획할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 한다. 죽음의 극복 의도를 지향하는 경우 흔히 '부 분적 생명의 진행과정'을 의학적으로 유지시킬 뿐 인 생명 연장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 로든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항시 현존하다. 인 다. 우리가 삶에 어떤 지상 목표를 정해 놓고 온 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뜻한 게 되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물음이 되고. 죽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어떤 일은 의 음은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이 삶에게 묻는다. 죽 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일어나기도 하며, 정작 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주에 대한 우리가 애타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영영 우리를 비켜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생명 의 종말, 다시 말해 죽음은 비록 그 형태와 시간 은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야 만다.

>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으며, 생 명이 없는 물질의 세계에는 죽음도 없다. 죽을 것 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이 없는 세계에는 생명이 없다는 의미도 된다.

# 질투하시는 하느님



"질투는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치졸하고 유치한 감정입니다. 상대방의 애정이 다 른 사람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한 강론가였던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좀이 옷 감정이니까요."

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대사 일부다. 이 대 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라는 작품(사진)에서 사랑에 빠지면서 질투하는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잔잔한 재미를 주었다. 사실 드라마나 소설 등 인 간사를 다룰 때 질투는 매우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늦 터진 나는 서른이 되 도록 '질투받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고 여겼다. 지금은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 때까진 그래도 부모님, 선생님 등 웃어른들로부터 비교적 인정받는 편이어서 주변의 질시를 받는 입 장일 때가 가끔 있었고, 그것이 무척 괴로운 일이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이 서른이 되자 '질투하 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하느님 이름이다. 는 고통'을 알게 되었다. 그건 질투 받아서 겪는 고

그래서 4세기의 교부 성서 해석학자이자 유명 을 먹는 것같이 질투는 사람을 먹어 버린다."고 한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혼을 쏙 빼놓았던 드 했다. 그리고 16세기 화가 아뇰로 브론치노는 '비 모습으로 질투하는 사람의 고통을 인상적으로 표 혀했다

> 아무튼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질투가 썩 아름 답거나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진대, 성경에서 하 느님이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느님'이라 한 건 참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랑의 하느 님', '자비의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이 얼마나 멋진 하느님의 모습인가. 그 런데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니, 참 민망하다. 우리

십계명의 출처인 탈출기 20장 1-6절에서도 하

하느님의 질투는 하느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필연적으 로 연관되어 있는 사랑의 파생물이다. 질투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이자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능동적 관심을 강조하는 말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다.

느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느님'이라 소개한다. 느님답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사람 그중 특히 5절이 최악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당신보다 더 위대해질까 봐 두려우셨다 말인가? 대 사 대 자소들에게까지 갚는다."(탈춬 20.5)

하시는 법이 하느님치고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일까? 그럴 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타락한 신들이 아니 라 우리가 믿고 따르며 흥숭하는 지극히 유리적 든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신 유일신 하느님께서 어찌 보통 사람들도 말 하기 꺼리는, 그런 치졸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 하시는지?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어떠한 언 어로도 규정짓거나 한계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어떠 실 수 없으신 것이다. 우리 모두를 당신 분신으로 한 분이라는 형용어를 붙여 그분을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려는 그분 의 의도 때문이다. 탈출기 20장 5절에서 하느님 스스로 질투하는 하느님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바 로 앞 구절인 4절과 5절의 앞부분에 숨어 있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모 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는 말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다. 하느님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탈출 20,4-5)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아가 우리 모두가 우 질투하는 하느님은 곧 사랑하는 하느님이시다. 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스스로를 '질투의 화신'이라고 소개하신 것이다. 도대체 우상이 무엇이기에 하 송향숙 그레고리아 가톨릭출판사 편집국장

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하느님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집투하는 하느님이다. 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잡신들이. 아니면 무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대 근동 무시무시한 질투의 화신 같다. 내용이나 말씀 의 잡신들에게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려우셨던 것

우상은 어떤 이름을 지녔든 어떤 모습을 지녔 아니다.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진짜로 섬기 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우상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사실 하느님 앞에는 어떤 형용어가 붙는다는 탐욕, 자신의 지위 등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우상을 섬길 때, 결국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다. 하느님은 그걸 보 여기시는 사랑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까 지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신 하느님께서 우 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 하느님의 질투는 하느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 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 는 사랑의 파생물이다. 질투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 이자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능동적 관심을 강조하 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기에 질투하신다.



#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이 들어 주신다

김현조 스테파노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1980년 10월 초순 직원들이 안식구와 함께 등반해야 한다고 거리를 장만하려 이 시장, 저 시장 우겨 불편했던 아내와 함께 저는 설악사을 넘었습니다. 산을 내 을 돌고 음식 장만과 설거지, 첫 려온 그다음 날 아내가 몹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소 등으로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 중기를 지나가고 있는 위험한 상태의 위암이었습니다. 지금과 을 정도로 고생한 아내의 헌신적 다르게 당시의 의술은 아내를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에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였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사기당하고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가 세상 마디도 건넨 기억이 없습니다. 눈 을 떠나셔서 저의 아버지는 16세에 일곱 식구의 소년가장이 되 지로 중병이란 사실을 알고도 태 셨고 저는 그분의 장남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빈곤한 생활 연해 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후회 에 어린 저는 빈곤이 가져오는 열등감과 가난한 가정을 얕보는 와 미안함과 막연함이 교차하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차별대우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자랐습 니다. 참는 일에 이력이 나 있었지만 화를 품고 살았으며, 염세 적인 사고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경이 저에게 준 소명 은 '집안의 재건'이었습니다. 이 소명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 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려운 시험도 차례로 합격하고 승진도 빨라 짧은 중역생활 내가 불쌍해서 친구들 앞에서도 을 거치고 마흔 살에 저는 어느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박수를 보냈고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어느덧 저는 교만한 사람이 가지는 눈빛과 언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군처럼 변해가는 성격이 가족을 힘들게 하여 마침내 아내 하고 있던 어느 날, 개신교를 다니 로 하여금 중병을 얻게 한 것입니다. 월급생활자의 어려운 살림 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 지인과 친척들의 방문으로 싼 먹 배당에 다니자며 일러준 말이 되

수고한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 가운데. 불쌍한 아내가 비로소 눈 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은 이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 도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결심을 하였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부끄럼도 없이 서러워 울고 다니 게 되었습니다.

명동성모병원(지금의 가톨릭회 관)에 입원하여 수술 받을 준비를 던 고교 동기생이 자기와 함께 예

┗┗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실천으로 옮 길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믿 음은 더 큰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 니다 "

살아났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느님이 만드셨 다. 그런데 사람이 죄름 짓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면 예수님이 용 서해 주시므로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죄를 지은 일도, 죄를 지을 일 도 없었기에 웃고 넘겼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하느님의 부르심 이 이제야 제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질곡을 건너갈 한 가닥 희망의 길이 보이 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하느님은 가능한 일이야. 없는 사람 도 지어내시는데 병든 사람 하나 고치는 것은 하느님께는 일도 기 힘든 죄를 조금씩 정리해 주셨 아니다. 하느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다.' 그래 서 그것이 기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아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는 죄 많 은 사람이지만, 죄 없는 제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엄마 없 이 자라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 아내를 살려 주십시오. 제가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기도가 짧긴 하지만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전체 위의 20%만 남긴 절 은 복지시설까지 운영할 수 있게 제 수술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사실 저는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같은 검진을 받았으므로 의 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르 10,27)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저의 몫이 되어 제 발로 성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평화로운 귀향 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17)고 하시며 죄인인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입학, 입영과 같은 부름은 새로운 만남으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 옵니다. 저를 부르신 하느님은 저의 사고방식까지 바꾸시는 엄청난 변화를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첫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이 저를 불렀으니 제가 죄인이라 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며, 그러나 주님이 세례로 죄를 사해주셨기에 천국입국 가능자 자격을 수여받았 고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느님은 특히 저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둘째.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가 며 저의 생명을 살리시는 참된 주 님이신 예수님이 좋아 30년이 넘 도록 매일미사를 통해 주님을 모 시고. 30년이 넘도록 그분의 심부 름인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버리기 어려운 욕망과 끊어내 습니다.

셋째. 어린 시절부터 꿈꾼 '한' 과 같은 '사장직'의 실패로 한때 호된 고통을 당하긴 했어도 주님 께서 회복시켜 더 큰 회사로 키 워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작 허락해 주셨고. 저를 안내자로 하 여 주변 사람들과 5남매 형제 내 외, 조카와 사위들이 모두 세례 받 아 '집안의 재건'이라는 저의 가정 적 소명을 '집안의 구원'으로 이루 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행복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감 사합니다

세례성사로 부름을 받은 신앙 인인 우리가 수행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서 분필 한 통을 가져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면 그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 것은 심부름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담임선생님이 아무나 심부 로 가정이나 직장, 교회 공동체에 름을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은 세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 속에 살지만 예수님께 속하는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봉사가 너무 힘들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우리 삶 안으로 초대하는 기회를 하면 되겠습니까?"하고 주님께 여쭈었더니. "내가 사랑하는 아 드리게 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하고 되물 었습니다. 얼떨결에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하고 답했더니 "아 니다. 다른 말이다. 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 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답하시며 저를 그 봉사직 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명은 사랑이지 의무가 아니었습니 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 일을 하다니? 분명 감격 그 자 체입니다

저는 세례 받은 다음 해부터 본당과 성령쇄신에서 두 가지 봉 사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 르시는 이유가 저를 사랑하고 저 들이 뇌종양이 있어 보라매 병원에 입원 중인데 기도 중에 이상 한 소리가 나 교우들과 상의했더니 "이상한 소리는 성령기도회 회장이 잘하니 그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저를 찾아 이 저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청년을 위해 병 원을 방문하여 부부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그분으 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다녀가시고 그저께 X레이를 찍었는데 뇌종양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이 중요합니다."(갈라 5.6)라는 말 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두 러한 기적은 기도하는 이의 엄청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지나서야 그 기적의 원인이 청년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극한 부성애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주님은 그를 기도 하게 하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 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느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 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 이기 때문입니다.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때

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느님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우리 생 활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이 없으 면 믿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없습 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 하는 믿음은 더 큰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분 명해진 결론은 주님께서 저를 부 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 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젠 하느님 래서 하느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을 저도 귀하게 받아들이고 싶습 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 씀과 같이 저도 생활로 주님을 사 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 운동

대담 · 정리: 김세진 편집위원



한국평협에는 27개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습니다. '평신도'지는 본란을 통해 회원 상호 간에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 에서 각 회원단체를 탐방 또는 Q&A 형식을 빌려 소개합니다. 이번 봄호에서는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에 대해 알아 봅니다. 두 차례의 전화로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문원주 여성대표에게 평신도지의 취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메 일로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아사업회 대표께서는 평신도지의 발전을 축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 Q.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의 목표와 특징, 설립 배경이 궁금 합니다.

A. 1943년 끼아라 루빅(1920~2008)이 창설한 마리아사업회는 일 치의 카리스마를 특징으로 합니다. 복음말씀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백성을 형성하는데, 특히 예수님 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도 그분의 가장 깊은 원의를 표현하는 말 씀, 곧 "모든 이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대 사제의 기도'에 따라, 일치된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고유한 목표 입니다

### Q. 마리아사업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A. 포콜라레 운동은 기본적으로 평신도 운동이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있고, 일치된 세계를 건설하는 일치의 카리스마를 그들 삶의 모

것을 고유한 목표로 추구하기 때 문에. 종교와 문화와 민족과 언어 와 세대의 장벽을 넘어서, 보편적 형제애의 가치와 일치를 가능케 하는 서로 간의 사랑의 힘을 믿는 모든 계층과 성소의 사람들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업회 전체의 핵심을 이 루고 있는 이들을 '포콜라리노 (focolarino)'라고 부르는데, 이 들은 하느님께 봉헌된 남녀 평 신도들로서, 일치의 카리스마 를 포콜라레의 삶을 통해 전파하 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솔선자 (volontario)'라고 불리는 이들은 든 영역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탄생한 새 로운 세대(Generazione Nuova)라는 뜻을 지닌 '젠(Gen)'이라고 불 리는 젊은이, 첫소년, 아동들이 있으며, 일치의 카리스마를 사는 여기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만 사제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봉헌 생활자들의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대중운동(movimento di massa)'이라고 부르는 단체들은 이 운동의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서, 새가정 운동, 새인류 운동, 본 당 운동,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보다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Q. 설립 후 마리아사업회에서 진행해 온 활동 중에서 가장 대 표적인 활동들을 뽑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무엇보다도 저희 단체에서는 일치의 카리스마를 확장하고 정 안에서 자녀 교육문제와 부부 일치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화를 꾸준히 해 왕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대화, 다른 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리스도교 형제들과의 대화,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 종교적 신 념을 지니지 않는 이들과의 대화. 그리고 현대 문화와의 대화 로 이루어졌으며, 각 대화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발전하고 를 주며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 외에도 행복마을 유영과 일치를 위한 정치운 동. 그리고 공유경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행복마을에 관 해 말하자면, 이는 한 외국 포콜라리노의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 이주 노동자들과 새터민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 습니다. 행복마을에서는 이주노동자들과 탈북주민들을 위한 진 료와 마켓 등을 열어 매달 한 번이기는 하지만 이들과 보편적 형 제애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아라 루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중의 사랑'인 정치에도 일치의 카리스마가 스며들 도록 기획된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주 부의 열렬한 기도에 힘입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치를 위 한 정치 포럼과 사회 포럼이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 일치의 카리스마에 바탕을 둔 정치의 복음적 쇄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치의 정신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 운동으로 경제 활동

안에서도 친교의 정신에 따라 살 며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으며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이 윤과 지적인 부를 함께 나누며 공 유함으로써 가난을 극복하며 모 두가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주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 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며 새로유 경제를 이루어나가려고 하고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가정 운동에 대 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가 관계에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산아제한을 강요하던 시기에 회 원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혼인의 가 치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가정을 돕고 위기에서 구하 고 있습니다.

## Q. 마리아사업회를 유지해 오면 서 특히 어려웠던 시기는 언 제였습니까?

A. 특별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 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교 회로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교회의 보호 아래 성장해 올 수 있었기 때 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신

37

도 운동으로 생활해 오면서 아직 평신도 운동의 위상이 자리 잡 지 않은 상태라 교계제도 안에서 운동의 특성을 지니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다른 운동들에 비해 이해시키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산시키기보다는 삶에 중점을 두 고 생활하려 노력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점이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 든 것들은 성장해 나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에 저희들 도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과거에 포콜라레 회 워들만 하는 우동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체 성을 갖기 위해 회원 양성에 집중하면서 본당 활동을 일시적으 로 멈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 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고 이제는 다양한 회원들이 교회의 곳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며 교회와 함께 일해가고 있습니다.

#### Q. 2014년, 마리아사업회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금념은 사업회 총회가 있는 해입니다. 창설자 끼아라께서 돌 아가신 이후 선출된 회장과 함께 살아온 지난 6년간의 여정을 성 찰하고 새로운 6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창설자의 카리스마 를 생생하게 이어가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사업회가 보다 큰 일 치된 삶을 살며 각 지역 간의 친교를 활성화해나갈 것입니다. 특 히 금년의 생활요점인 '서로 간의 사랑'을 살면서 일치의 정신을 구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원들 상호 간에는 물론 프란체스 에 모든 현실들 가운데 가장 현실 코 교황님께서도 간절히 바라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의 변방 곳 곳에까지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Q. 마지막으로. 마리아사업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포콜라레 운동을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일치된 세계를 건설 하기 위한 하느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 각이 들었습니다.

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 서는 시대마다 다양한 카리스마를 통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은총을 내려 주셨습 니다. 20세기 중반에 태어난 이 포 콜라레 유동을 통해서, 그부께서는 삼위일체이신 당신의 존재 방식을 현대 교회와 인류에 선사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는 각자가 그리고 모두 함께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사랑'을 삶으로써 그부의 현 존이 교회와 사회 안에 자라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포 콜라레 운동은 자신이 받은 고유 한 사명에 충실하여 모든 이가 마 침내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과장되거나 허황 된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의 워의가 아니라. 하느님 께서 친히 간절히 원하신 현실이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꿈들 가운데 가장 워대한 꿈이며, 동시 적인 것입니다.

일치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모든 이가 하나가 되는 세계를 위 해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 하고 있는 마리아사업회(포콜라 레)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많은 평 신도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란 생

# 관장도 감복한 지극한 효성

# 박경화 바오로(1757-1827)와 박사의 안드레아(1792-1839년) 부자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이며 역사가인 클로드 달레 신부님 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나약함을 (1829~1878)은 그의 불후의 명저 '한국천주교회사' 서문에서 그 위우치고 신자로서의 본분을 더 가 이 책을 쓰게 된 까닭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국순교자들의 목 열성으로 지켜가기 시작했습니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망각되지 않도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언젠가는 우리의 제단 위에 모셔질 그분들을 잊히게 버 기는 데에 여러 가지 세속적 사정 려두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한 대로 103위 한국순교 성인들은 시성되어 지금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제단 위에 모셔져 있습니 다. 그리고 또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의 시복에 즈음하여 깊 이 그의 은혜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달레 신부님은 방대한 '한국천주교회사'를 저술하시면서 조 골로 숨어들었습니다. 금도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형집행인들 이 지치지 않고 고문했고, 천주교인들이 지치지 않고 죽었으며. 하느님은 순교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끈기를 주셨으니 어찌 내가 그분들 승리의 이야기를 쓰는데 지치겠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영광스런 과제는 그 승리 🛮 에 열중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의 삶을 본받아 사는 데에 지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후예입니다. 순교선열들의 삶과 죽음을 묵 모 신부님이 입국하시자 신부님을 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성찰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 찾아가 성세성사를 받고 그날부터 도록 우리 이야기를 펼쳐 보고자 합니다.

박경화 바오로와 박사의 안드레아는 부자지간이면서 함께 옥 고를 치르고 아버지 박경화 바오로는 옥사로, 아들은 참수로 부 자가 함께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과명을 '도항'이라고 하는 박경화는 충청도 홍주지방 양반 가문 의고 교리를 공부하여 신앙생활에 의 후손으로 태어나 재산도 넉넉했으며, 고을 사람들로부터 존경 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33세 때 천주교에 입교했으나 1794년 박 해 때 아직 예비신자로 배교한다고 말하고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

다. 그는 고향에서는 천주님을 섬 으로 지장을 받게 됨을 걱정하다가 그 재산과 일가친척을 남겨두고 고 향을 떠나 신앙생활을 더욱 자유롭 게 할 곳을 찾아 충청도 단양의 산

이때 그는 그의 아들 사의 안드 레아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태생을 숨기고 그곳 주인 행세를 하며 세 속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기도 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문 는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윽한 곳을 찾아 정한 시간에 기도와 묵상에 몰두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성서를 필요한 지식을 넓혔습니다. 사람들 은 그를 보고 참으로 자기를 잊어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며 그의 말음 아버지께 그토록 효성스러웠던 것과 같이 하느님께도 지극히 충실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은 그의 지극한 효성이 승화돼 완성으로 나타나는 초성적 덕행이었습니다.

경청하게 되고 그의 진실하고도 정성이 깃든 이웃사랑의 모범 때 문에 그의 말에는 더욱 설득력이 커서 그의 집에 드나드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이 무렵 그는 특히 자녀의 종교교육에 철저하여 아 들 사의 안드레아는 복된 가르침을 받았으며 치츢 효성이 지극한 일이오." 박경화 바오로가 지극히 자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27년 전라도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자 그는 주님 의 섭리에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교우들을 격려하고 스스로 순교의 열망을 품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중한 병이 들어 앓게 되어 효성 지극한 아들이 정성어린 간 호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 박경화는 아들 사의와 식구들에게 "염 려하지 말라. 너희들 앞에서 앓을 터이니." 하고 말한 적이 있었 습니다. 훗날 그가 순교하자 사람들은 이 말이 순교를 열망하여 결코 식구들 앞에서 병들어 죽지는 않으리라는 의지의 표현이었 다고 알게 되면서 더욱 그를 추모하였습니다. 1827년 4월 그믐 예수 승천축일을 맞아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축일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밀고자가 데리고 온 포졸들에게 부자가 함께 체 포됐습니다.

박경화는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 가 병이 들면 그 곁을 떠나지 않았 문이 되풀이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낀 그는 "이제 내 육신은 관장의 손에 맡기고 영혼은 천주님의 손에 맡깁니다."하고 부르 짖었습니다. 형리들은 그의 뺨을 치고 수염을 뽑고 온갖 모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박경화 바오로는 "이 고통은 주님 의 은혜이니 천주께 감사한다."고 하며 놀라운 인내로 그 고통과 저 음식을 들기도 했습니다. 아버 모욕을 이겨냈습니다. 관장은 결코 굽힘이 없는 노령의 이 증거 지 박경화는 술을 즐기는 편이어 자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괴롭혔습니다. 노령에다 여러 차례 고문으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그는 죽음이 가까 만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 이 온 것을 알고 옥중에서 아들과 교우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 을 했습니다. "이 옥을 복락소로 생각하시오, 밖에 있는 가족들 가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즐기는

로 인해 분심을 갖지 말고 내 뒤를 따르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 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평온한 기색으로 옥사 슈교하니 1827년 11월 15일로 그의 나이 70 세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체포당해 감옥 에 온 아들 박사의 안드레아는 그 토록 덕을 갖춘 아버지의 모범에 따라 독실한 신앙생활 속에 자랐 습니다. 나이가 차면서 신앙과 열 성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효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는 일상생활에 규율이 있었고 모 든 이에게 친절하고 관대하였지만 효성이 특히 지극했습니다. 부모 고 또 부모가 먼저 식사를 한 뒤가 아니면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의 부모는 아들이 밥을 먹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먼 서 절대로 과음을 하지는 않았지 니다. 사의 안드레아는 살림살이

술을 반주로 드시도록 하는 데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이러한 작은 기쁨이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엄격히 절제하면서도 기뻐하였 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이 너무 협소하 단다. 필요한 때에 몇 명의 교우들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라도 방 이 2~3개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아 들인 사의는 그대로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 일 일과를 평소처럼 하면서 외출할 때마다 어김없이 들보나 섯 가래감을 1~2개씩 모아서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방 몇 칸을 늘려 놓았습니다. 주위의 신자들이 이 복된 집을 찾아 모여들고 또 아버지 박경화는 가난하면서도 찾아온 손님들을 예 의에 벗어나지 않게 대접하기를 바라기에 아들 사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더욱 근검절약하여 손님 접대에 필요한 비용을 마 련해냈습니다.

주님 사랑의 계명을 열절하게 실천하던 그는 아버지와 함께 체포당하여 늙으신 아버지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 그도 뛰어난 인내와 용기로 형벌을 견뎌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상주진영 에서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에는 부자를 습니다. 같은 감옥에서 동시에 옥살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의 안드레아는 아버지가 문초와 형벌로 몹시 쇠약 해진 것을 보고 잠시라도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면서 관장에게 간절히 호소하여 아버지와 함께 지내도록 청원했는데 관장은 아들의 효성에 감복하여 "국법에 금하는 바이나 너의 청이 옳고 타당하 니 그 지극한 효성을 보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함께 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함께 하였습니다. 사의 안드레아는 형벌 을 받고난 후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데 아버지 께 다가가서 목에 채워진 무거운 칼을 쳐들어 조금이라도 가볍 게 해드리니 옥중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광경에 깊이 감명하여 눈 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 다. 아버지께 그토록 효성스러웠던 것과 같이 하느님께도 지극 히 충실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흥숭은 그의 지극한 효성이 승화돼 완성으로 김길수 사도요한 전대구가톨릭대교수



대구 관덕정 순교성지

나타나는 초성적 덕행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의 효성과 동료 신자들에 대한 배려는 한결 같았습니다. 지루하 고 고통스러운 옥살이에서 교우들 은 그를 보고 위안과 용기를 얻었

박사의 안드레아는 영원한 신 앙의 동료들과 함께 참혹한 옥살 이를 장하게 견뎌내고 기해박해 가 일어나서야 정부 조치에 따라 1839년 5월 26일 참수형으로 순교 하니 당시 그의 나이 47세였습니 다. 그가 참수형으로 동료와 함께 순교할 때 이들을 바라보는 죄수 와 옥졸들은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옥중에서 보여준 이들의 모범적인 삶 때문 이었습니다



# 종교와 인간

가이 경외하고 숭배하고 신앙하여 선악을 권계 之心非人也 羞惡之心義之端也)" "사양하는 마음 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 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부분의 종교에서는 믿음을 지닌 이들이 신앙 공 동체를 이루어 초월적인 존재를 숭앙하는 의례 端也)".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 를 행하는 한편, 신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 를 권고한다. 흥미로운 것은 영성적인 삶을 추 구하는 종교적인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 고 한다. 인의예지야말로 사람이 사람인 까닭인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을 끊 임없이 해왔다는 점이다. 종교의 근원적 속성인 영성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인간만이 지닌 본성으로 인의예 지 사단을 들고 있다. '맹자'에 따르면 "사람은 모 가능태이다. 중생도 불성을 지니고 있으나 미망 두 차마 어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人皆 有不忍人之心 無惻隱之心非人也)", "早卫러워하 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 부끄 切衆生悉有佛性)"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하다. 이

의 실마리이다 (無辭讓之心非人也 辭讓之心禮之 이 아니니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실마리 이다.(無是非之心非人也 是非之心智之端也)"라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인간은 하늘이 내려준 본 성을 지니고 태어난 온전한 존재이다.

> 불교에서는 일체의 중생이 부처가 될 가능성 이 있다고 설법한다. 이러한 여래성(如來性)에 의 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가 성불(成佛)할 수 있는 에 가려져 나타나지 않을 뿐이며. 이 미망을 없애 면 자연히 불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열반경'에 서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ㅡ

하느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며,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주님(Domine)'이라고 부르고, 타인을 주님 대하듯 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에 따르면 심지어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해야 가의 생명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귀한 대접을 받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열반의 경지에 들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귀한 없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마음대로 처분 존재인 것이다. 불자들이 상대방에게 성불하라고 할 수 없어 자살이 대죄(大罪) 또는 사죄(死罪)로 덕담하고. 상대방을 높여 불도를 닦아 보리를 구 하고 뭇 중생을 교화하여 성인이 된 '보실'이라고 뜻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완전한 자유의지로 하느 칭하는 것이 마땅한 까닭이다. 불성을 지니고 있 는 인간을 마치 부처처럼 대접하는 큰마음이다.

이 땅에서 발원한 천도교의 사상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인내천(人乃天)이다. '동경대전'에 의 하면 "한울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天心即人 心,)"이다. 인간은 곧 하늘과 같은 존재로서 첫도 (Imago Dei)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성경'에 따르 교에서 칭하는 한울님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 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에 사람 섬기기 를 마치 한울님과 같이 해야 한다는 사인여천(事 人如天)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경지에서 는 인간이 모두 평등하고, 근본적으로 귀천이 있 을 수 없게 된다. 결국 한울님과 사람과 자연이 모두 공경의 대상으로서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지(敬地)의 넓은 마음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궁극적인 존재와 동일한 대접을 받으니 그 존귀함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한편 그리스도교에서의 인간은 하느님이 직접 빚어 숨결을 불어넣은 존재이다. '성경'에는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

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규정되고 있다. 생명을 거스르는 일은 하느님의 님을 거역하고 범한 큰 죄이자 생명과 은혜의 하 느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오늘날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그리스도교에서의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 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 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 하느님께서는 이 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 1.26-27)고 기록하고 있다. 하느님의 형상을 본받 은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며, 그에 합당 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타 인을 '주님(Domine)'이라고 부르고, 타인을 주님 대하듯 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 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 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는 그리스도 의 말씀이 정곡을 찌른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본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 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다. 인간은 누구나 그 종교에서 숭앙하는 초월 되었다."(창세 2.7)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 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노비를 비롯한 일부 사노비 66.067구를 면천(免 하다

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출현한 부귀빈천(富貴貧賤)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는 무 다는 욕구단계설를 주장한 바 있다. 1단계 생리 소불위의 물질만능적 권력만능적 세태가 부끄 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감의 욕 립다. 구. 4단계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인 간의 최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은 바로 자신이 신 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잠재적인 가 을 닮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자유 시작되어야 한다.

전 벽의 심우도(尋牛圖)가 새롭다. 방만한 사이 회의 가르침이 새롭다. 에 사라진 누런 소, 이어 밧줄을 들고 소로 형상 화된 자아를 찾아 나서서 마침내 서방정토를 상 징하는 흰 소를 타고 돌아오는 동자 그림이 절묘 .... 영혼과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간은 임신되는 하다.

한 존재이다. 인간은 누구나 신이 상하귀천의 구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완성을 추구한다." 별 없이 공평무사하게 창조한 피조물이자 신으로 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개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다. 1863년 노예 해방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오늘날까지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연 원이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인간 불평등의 극치인 노비제도를 철폐하 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 다. 조선의 정조는 영조의 뒤를 이어 노비제 폐지 김문태 힐라리오 가톨릭대 ELP학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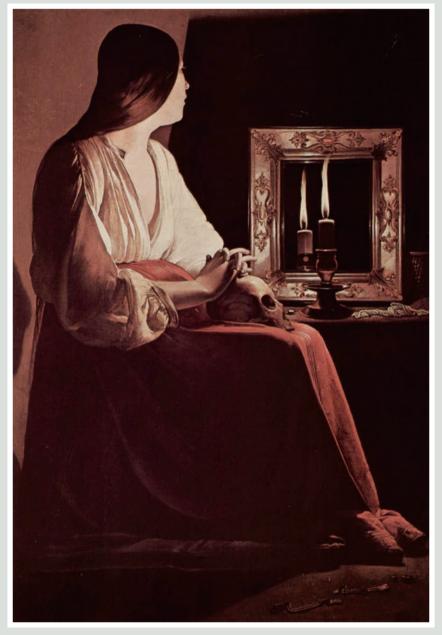
자아에 대한 성찰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 에 전력을 다해 마침내 승하 직후인 1801년에 공 賤)하게 하였다. 인간의 평등권에 대한 지극히 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매슬로(A, H, Maslow) 수한 인간애의 발로라 아니 할 수 없다. 오늘날

결국 신 앞에서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은 남녀 의지에 의해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받아 그리스도인의 경우, 자신을 비롯한 인간은 모 야 한다. 나 자신이 궁극자 내지 초월자로부터 특 두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직접 만들어 생명 별한 소명을 받은 귀한 존재이므로 내 곁의 가족 을 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 친지와 이웃도, 저 멀리 있는 타 민족과 타 국가 고 그러한 인식에 합당하게 살 때 진정한 자아실 의 이방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귀한 존재라는 현에 따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인류의 공존 린 자아를 찾아나서는 동자를 묘사한 사찰 대웅 과 평화. 그리고 참된 행복이 실현될 것이다. 교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순간부터 이미 하느님을 향하고, 영원한 행복을 또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본 인간은 서로 평등 향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진리와 선을 탐구하며

('가톨릭교회 교리서' 1702. 1711항)

# 조르주 드 라 투르의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1638~1643년. 캔버스 위에 유화, 133.4x102.2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러나 참회의 순간. 가신 주님 생각하면 지은 죄만 생각나고, 뒤돌아보면 지나온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뿐, 부족한 섬김이었을 것이다.

마음을 잡을 길 없는 나약한 우리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타오르는 촛불에 기대어 신앙의 힘을 되 랑스 화가이다. 그는 국왕 루이 13세를 비롯해 많 찾고자 했던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진리를 발견하 은 후견인들을 두고 있었기에, 화가로서의 부와 여 참된 길로 들어서고자 한다. 그 사람은 마리아 명예가 대단했다. 이런 그가 1915년 그 가치가 재 막달레나인데. 특히 조르주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 1593~1652)가 그린 이 성녀의 신앙고 에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희한한 임이 백은 고요하고 깊은 묵상 속에서 호돈에 사로잡 힌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계기를 지를 소유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진 분쟁을 마련해준다.

성서에 의하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일곱 악령 과 병에 시달리다 치유되었으며, 죽었던 오라버 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입었고, 갈보 은 왜일까? 그림에는 주님에 기대어 더욱 깊은 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 신앙을 갖고자 하는 한 나약한 인간의 경건한 지 았으며,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와 요안나 및 향이 보이지 않는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부활한 예수님을 로 닦으며 죄를 회개한 여자이기도 하다.



리스교 미술에 서는 전교의 성 녀로 묘사되었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은 1517년 종 교개혁 이후, 가톨릭교회가 프로테스탄트로 전향 한 사람들에게 재개종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나타

요란하고 번잡하며 혼란스런 오늘, 흔들리는 나는데, 드 라 투르의 이 작품도 예외가 아니다.

조르주 드 라 투르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프 발견되기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그늘 다. 드 라 투르는 로렌 지방의 부호로 광대한 영 겪어야 했던 인물이다. 결국 민중에게 가한 가혹 한 행위 탓에 1652년 1월,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 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이 고양된 종교 적 경지에 달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화가의 말년 작품들은 주로 촛불에 비춰진 만나기도 했다. 또한 바리사이의 집에서 그리스 실내의 정경 속, 빛과 어둠의 이분법을 통해 깊 도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 은 꿈의 몽상이나 종교적 명상에 젖은 인물, 속 세의 욕망에서 초탈한 의인(義人)의 심성을 담아 마리아 막달 내고 있다. 그 촛불에 비친 어둔 공간, 고요한 침 레나는 초기 그 목이 흐르는 극도의 적막감을 보이는 이 공간이 나와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 그 고백의 장소인 듯하다. 이처럼 그의 그림은 촛불에서 비롯된 강 한 빛과 진한 어둠의 대비가 극명한 것이 특색이 는데, 10세기에는 속죄의 성녀로 그려지면서 주 며, 그 밝음과 어둠의 실내는 고요한 명상의 공 가이기도 하다.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조용하고 깊은

명상 속에서 행하는 신앙고백의 순간을 보이고 짝 위로 들린 고개와 무심히 응시하는 눈, 약간 벌 있다. 그 광경과 자태가 얼마나 경건한지, 복잡한 어진 입술이 깨달음의 순간에 느끼는 황홀경에 다 현실의 굴레에 편승하여 현된 욕맛의 족쇄를 번 특이 아니다. 그 반성과 깨달음의 순간 그 벅찬 감 겨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림 동에. 그녀의 코와 입에서 약한 숨과 짧은 탄식이 속 마리아 막달레나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의 솟는다. 거울을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젖어있다. 그 단아 하고 안존한 모습이 창녀라는 오해를 거두어내기 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녀가 입고 있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블라우스가 열려. 속살이 촛불에 비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그녀의 마음에 도 사리고 있던 세속의 욕망을 미처 다 거두어 내지 구들 널브러져 있다. 그녀가 이 묵상과 응대의 시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



공들여 입한 액자로 장식 되 세계가 이토록 화려하

지 못한 인간의 나약한 심성을 반영한 것이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담긴 것은 오직 촛불뿐이다. 촛 불이 무엇인가? 한편. 순간 불타고 마는 속성으 로 삶의 일시적 유희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빛, 바로 인류의 구 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모습이 기도 하다.

불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이다. 그녀는 예 수님을 응시하며 깍지 낀 손을 무릎의 해골 위에 올려놓았다. 손의 자태가 기도와 복종과 겸손함을 나타내다. 이 여인은 영원한 삶인 신앙 앞에서 세 속적 삶의 허무함과 그 욕망의 덧없음을 마음 깊 이 새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촛불을 바라보느라 옆으로 돌린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자. 살 권용준 안토니오 고려사이버대교수

그러니 촛불이 발하는 고요한 빛과 그윽한 정 서는 인간 내면을 비추는 것이며, 그 촛불이 해골 과 거울과 연관을 맺으면서 우리 마음 깊숙이 자 리한 진실한 모습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테이블과 마룻바닥에는 귀한 장신 간을 갖기 전. 세속적 아름다움을 뽐낼 때 치장했 테이블 위의 거울은 정 던 것들이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를 교하게 세공되고 금박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우쳤는데, 이 일순간의 허영 과 사치가 무슨 대수일까? 그 간절한 묵상 속에서 되어 있다. 거울의 의미는 만난 주님께서 그녀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 순 거짓과 가식이다. 그 거짓 간. 그 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그녀 의 진실한 모습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회하고 게 치잣되어 있으니, 이 역시 세속의 욕망을 버리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복종과 감내의 심정을 감지

그러나 참회의 순간, 가신 주님 생각하면 지은 죄만 생각나고, 뒤돌아보면 지나온 걸음마다 주 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뿐, 부족한 섬김이었을 것 이다. 그리운 마음 가눌 길 없어 십자가만 바라보 지만, '주시는 사랑 받기만 했는데, 이제 이 죄인 그렇기에 지금 마리아 막달레나가 응시하는 촛 어찌합니까?'라는 회한으로 가득한 마음이 후벼 파진 해골의 퀭한 눈보다 더 허전할 뿐이다. 그러 나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 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사도 3,19)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여인의 강한 신앙 앞에 나 자신이 숙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일까?





드라마 | 2014.2.27 | 134분 미국 외 | 15세 관람가 감독 스티브 맥퀸









노예의 역사는 길다. 기원전 1만여 년 전 신석기 농경시대에 노예제도가 등장하고, 금속의 사용이 보편화된 청동기시대와 철 기시대에 이르러서는 노예가 급속히 증가했다. 노예제에 관한 최 초 문헌은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60년께)이지만, 성경에서도 노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탈출기는 바로 노예의 삶, 이 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던가.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전까지 노예는 주요 교역품목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야말로 노예 '사냥'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노예로 잡혀간 이들이 1500만명에 이른다 하니 가히 놀랍다. 노예제는 '천부인권'에 대한 자각이 싹트고, 인간이 같은 인간을 착취하고 잔인하게 부리는 그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사라졌다. 근대 노예제의 표상처럼 여겨지던 미국의 노예제 역시 1808년 미국 정부가 노예무역을 불법화하면서 전기를맞게 된다.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에서는 흑인들을 자유인 신분으로 대우했으나, 남부는 목화 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노예수입 금지조치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북부 자유주(州)의 흑인을 납치해 남부의 노예주로 팔아넘기는 흑인 납치사건이 횡행하게 된다.

'노예 12년'(스티브 맥퀸 감독, 2013)은 바로 노예 수입이 금지 되었던 1841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바 이올린 연주자이던 음악가 솔로몬 노섭(치웨텔 에지오포)은 공 연 제안을 받아 가게 된 워싱턴에서 자신도 몰래 노예상인에게 팔려 루이지애나로 끌려간다. 자유인 신분이었으나 철저하게 외 면당하고 이름마저 빼앗긴 채 노예의 삶을 살게 된 솔로몬은 그 후 12년간 참혹한 노예의 현실을 온몸으로 겪게 된다. 1854년 솔 로몬이 구출된 지 1년 후 12년간 노예로 산 체험을 기록한 '노예 12년'이 출간되는데, 바로 이 영화의 원작이다.

영화는 흑인 노예의 시선으로 바라본 당시 미국의 실상, 그리

고 제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추시킨 백인들의 역사를 그린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노예로 팔려가 솔로몬이 발 이 빠져드는 진흙탕에서 밧줄에 목이 졸리지 않기 위해 까치발을 서며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쇼트이다. 그의 뒤로 무심하게 묵묵히 일하는 노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인간성을 잃었다. 나쁜 제 예들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인다. 삶과 죽음의 경계, 노예와 자유인의 기이하면서도 참혹한 동거와 이항대립, 노예의 삶을 이토록 적 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

영화에는 두 백인 노예주 윌리엄 포드와 에드 노예해방선언이 나온다. 위 엡스가 등장한다. 포드(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비교적 양심적이고 온화한 인물. 그는 솔로몬에 게 바이올린을 선물하며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도 어쩔 수 없이 이기적 인 인물, 솔로몬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들였고. 돈 때문에 악독한 노예주 엡스에 게 솔로몬을 팔아버린다. 엡스(마이클 패스벤터) 는 난폭하고 악락하기 그지없는 인물, 노예를 학 대하고 강간하고 폭력을 일삼지만, 그는 또한 여 성 노예 팻시(루피타 니옹고)를 강박적으로 사랑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들 백인 노예주에게서는 인간의 이중성과 보편성이 드러난다. 온화하면서 잔인하고, 강하 면서 나약하고. 물질을 가졌지만 정신적으로 피 폐한, 그래서 더없이 불행한 인간의 벌거숭이 모 습. 이는 팻시를 두고 도망치듯 떠나는 솔로몬의 모습에도 어김없이 투영된다.

인간의 이중성은 종교에 접근하는 지점에서도 나타난다. 영화에는 백인 노예주가 하느님께 기 도하고 성경구절을 읽는 장면이 있다. 포드는 물 론이고 흑인노예들을 가혹하고 잔혹하게 다루는 엡스도 하느님의 말씀을 입에 올린다는 사실. 하 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한 인간은 창조주의

정신과 사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끝없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허우적대다.

노예제가 존재하던 시절. 흑인은 백인의 소유 물로서 인간의 존엄이 부정되었고, 일부 백인들 은 흑인들에게 가한 잔혹한 폭력에 무심하거나 도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를 불행과 피폐로 몰 아간다. 미국의 노예제는 결국 북부와 남부의 물 리적인 전쟁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쟁으로 살상되는 와중에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 12년'은 '재미'있거나 편안하게 볼 수 있 는 영화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눈감지 않아야만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이다. '노예 12년'에서는 인간에게 내재한 폭력성 과 차별의식, 자유와 희망에 대한 갈구, 용인된 제도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며 비인간적 행위 와 사고를 합리화하는 지점을 가감 없이 보여준 다. 이와 같은 영화의 묵직한 주제와 메시지에 아 카데미는 작품상으로 화답했다. 또한 온 몸으로 불행한 삶을 견뎌야 하는, 그래서 차라리 죽여 달 라고 솔로몬에게 애원하다가 절망마저 체념한 듯 무표정한 여자 노예 팻시를 연기한 루피타 니옹 고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당신을 닮기 바라면서,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지만 선함과 영성을 간직하고 체험할 수 있 는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생각한다. 노예제가 금지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인신매매 등 현대판 노 예제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부당하게 인간을 속 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이 인간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조혜정 가타리나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

# 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 주소서

"Domine, labia mea aperies"







# 프랑스 수도원에서 보낸 성주간 이야기

이 지면을 통해 어떤 음악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그 주제 를 고르는 것은 매번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사순과 부 활을 염두에 두고 갖고 있는 음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아놓 았던 자료들. 수첩과 노트를 뒤적이고. 컴퓨터에 저장해둔 파일 들도 이것저것 다시 열어보았죠. 수난곡이나 부활에 관련한 오 라토리오 작품으로 주제를 잡아가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클릭한 사진 폴더 안에서 '2006프랑스'라는 이 름이 붙은 폴더를 찾았습니다. 한 장 한 장, 그 안의 사진들을 열 어보았습니다. 그해 4월, 프랑스 남부의 한 수도원에서 지냈던 열흘 남짓한 시간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경험했던 일들과 느낌을 글로 옮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6년 4월, 운 좋게도 저에게 성주간과 부활의 모든 전례를 중세 수도사들이 했던 방식과 같이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로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랑스, 폴 란드, 체코, 노르웨이, 미국,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 계 여러 나라에서 온 6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파리에서 테제 베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죠. 도착한 곳은 나르본(Narbonne)이라 고 하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차를 타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자리한 퐁프루아드 수도워(Fontfroide Abbev)이 바로 저희 의 목적지였습니다. 시토회 수사들이 이곳에 터를 마련한 것이 11~12세기였는데, 현재는 수도자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 다. 대신 매년 성주간과 부활 기간만큼은 옛날 그대로의 전례가 이곳에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성지주일 새벽부터 부활대축일 낮 미사까지, 참가자들은 천 년 전의 수도자들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시작





되는 독서기도(Lauds)를 시작으로 일과를 마치며 드리는 끝기도(Compline )까지, 하루 여덟 번의 기도, 즉 성무일도와 미사를 지켰죠. 모든 전례는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와 시편 창으로 이루어졌 가까워졌습니다. 언어, 성별, 나이 등에서 큰 차 는데요.

가 항상 가장 힘들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4월이 라고 해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안은 딱딱 한 돌바닥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로 가 득했습니다. 이 첫 기도는 "Domine. labia mea apreries-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 주소서."라는 말 과 함께 시작됐지만, 진정으로 입술을 열기까지 는 쉽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쏟아지는 잠도 문제 였고,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1년 정도 공부한 어 설픈 라틴어 실력으로는 주어진 음률에 맞춰 시 편을 노래하는데, 남들과 다른 발음으로. 다른 음 을 낼 때마다 저의 목소리는 작아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점점 더 편해 졌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이 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오전에 있는 미사에 서 강론은 프랑스어로 진행됐는데, 전혀 알아듣 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

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다른 참가자들과도 점점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 그중에서도 새벽 5시 반에 시작되는 첫 기도 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 니다. 체코에서 왔다는 한 자매님은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도 말씀해주 셨죠. 매끼 점심과 저녁 식사는 서로 돌아가며 준 비했는데, 먼 동양에서 온 학생이라고 당번에서 빼주었던 일도 기억이 나네요. 부활 성야 미사를 마쳤을 때, 모두가 상기된 얼굴로 포옹과 악수를 나누며 기쁨을 나눈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 다시금 꺼내어 본 2006년의 추억이 이제 곧 다 가옥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네요.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부활을 올해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펼치면 맨 앞장에 나오는 성경구절이다. 상트페테르부르 크 알렉산드르 수도원에 있는 도스토예프스키 무덤 묘비에 적혀 있는 귀절이기도 하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소설에는 신앙에 대한 고뇌가 바탕에 깔려 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중에서도 가 장 극적으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후세의 누구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두고 '그리스도 교 소설'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작품은 종교와 언어, 국적과 사상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 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소설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다. 이 소설은 왜 세계인이 사랑하 는 소설이 됐을까.

#### 톨스토이도 사랑한 소설

같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임종을 맞 았을 때 그의 옆에는 단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 카프카, 헤세, 헤밍웨이, 마르케스를 비롯해 자신 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다.

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같은 러시아인이자 추종을 불허하는 대가였지만 문학세계와 삶은 너 무도 달랐다. 톨스토이 문학이 자연적인 건강성 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 학은 병적이고 도시적이었다. 톨스토이가 부와 명예를 얻는 동안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 유 형지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박장을 전전해야 했다.

이렇듯 다른 운명을 살았음에도 톨스토이는 "세상에 있는 책 모두를 불 질러버리더라도 도스 일생을 벌하노라."

토예프스키는 남겨놓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 로 그를 흠모했다. 톨스토이뿐만 아니다. 카뮈. 의 문학적 입지 중심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음을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동시대를 살았지 시인한 작가들은 셀 수 없이 많다.

>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인간 에 대해, 인간 존재의 비극성에 대해, 인간의 한 계에 대해 그렇게 치밀하면서도 거대하게 조망한 작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가장 도스토예프 스키적인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고뇌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평생 운명과 싸운 작가답게 그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 외친다.

"내 일평생에 대해 스스로를 응징하노라. 내

는 빛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도스토예프스키 은 채 발견되다. 무신론자인 이반에게 영향을 받 의 소설은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리만큼 생생하게 은 스메르자코프의 소행이었다. 그러낸다. 그것은 곧 인간 모두의 한계이자 우리 가 신앙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반의 말에 세뇌 하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인간적인 욕망과 고뇌 된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죽인 것. 하지만 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카라마조프 메르자코프는 간질 발작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나 가의 형제들'은 영원한 고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다른 세계관을 지닌 문제적 주인공들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문학작품들은 '죄와 고받는다. 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특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만인은 만인에 대해 유죄"라는 사 과 육체, 무신론과 유신론 등 대립하는 가치들 간 상, 즉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로 프스키 소설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한 구체화되어 있다.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는 탐욕스럽고 방탕한 노인이고 큰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닮아 음탕 하지만 고결함을 동경하는 순수성도 함께 지니고 국을, 이반은 지옥을 의미한다. 주인공들은 서로 있다. 둘째 아들 이반은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으 로 "천국행 입장권을 반납하겠다."고 말하는 무 신론자이자 허무주의자다. 셋째 아들 알렉세이는 수도원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 매우 종교적인 인 물이다.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 표도르와 백 치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간질을 앓고 있 다. 묵묵한 머슴처럼 보이지만 표도르에 대한 뿌 리 깊은 분노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인인 그루센카에게 연정을 품으면서 촉발된 반목 된다.

바로 이 인간의 한계라는 지점에서 신앙이라 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어느날 표도르는 죽

"신이 만든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고, 아버지와 크게 반목했던 드미트리가 살인범 으로 체포된다. 결국 스메르자코프는 자살하고. 뒤늦게 깨달음을 얻은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증오 했던 마음의 죄를 인정하듯 순순히 20년형을 선

언뜻 단순해 보이는 줄거리 구도 속에는 정신 의 갈등이 속속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도스토예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위나 논쟁 속에는 소설에는 5명의 문제적 주인공이 등장한다.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이 파편처럼 녹 아 있다.

> 소설 속에서 드미트리는 땅을, 알렉세이는 천 대립하고 뒤엉키면서 현실과 영성을 넘나든다.

#### 신앙에 고개 숙인 인간의 모순

여기서 잠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을 들여다 보자.

도스토예프스키는 25세이던 1846년에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면서 당시 러시아 문단 의 총아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 사회주의 경향을 띤 모임에 출입하다가 사형 표도르와 장남 드미트리는 그루센카라는 여인 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기막힌 우연이었는지 집 을 두고 서로 증오하게 된다. 표도르가 아들의 연 행 직전에 사형이 취소되고 대신 유형을 떠나게

전도유망한 신인 작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감옥과 군대에서 8년의 유형생활을 하는 동안 유 일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은 성서였다. 그의 마지 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성서에 대한 깊이 있는 독서와 유형생활을 하면서 들은 이야 기가 절묘하게 섞여 탄생한 작품이다.

4부 12편으로 구성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운데 5편 'Pro와 Contra'는, 도스토예프스키 스 스로 이 소설의 정점이라 부른 부분이다. 여기에 는 '대심문관'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반의 서사 시가 포함돼 있다.

이반이 동생 알렉세이에게 "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 이지 않겠다."는 요지의 고백을 하고, 이 논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대심문관'이며 다음 과 같은 내용이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가 극에 달하고 연일 종교 재판이 열리던 16세기 스페인에 그리스도가 나타 큰 힘을 부여해 주는가?" 난다. 대심문관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지 상낙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유를 누릴 자격이 가 작가다. 인간 내면의 온갖 모습이 적나라하게 없는 인간에게 빵을 주고 대신 자유를 반납받았 으며, 그리하여 그들을 온순한 양떼로 만들었다 는 것이었다. 대심문관의 기나긴 독백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는 대심문관에게로 다가가 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춘다.

작품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비평가와 철학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들이 이 '대심문관'에 대해 논평하고 분석해 왔 다. 이 부분만이 따로 책으로 묶여 출간되기도 했 상조차 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대심문관'에 대한 반론으 로 조시마 수도사의 설교인 제6편 '러시아의 수도 승'을 쓰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신성(神 聖)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다

조시마는 사랑과 화합, 용서와 복음에 대해 이 허연 바오로 매일경제신문 문화부장

야기한다. 소설 속에서 조시마는 욥의 믿음을 이 야기하면서 이렇게 외친다.

"아아, 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며 이 얼마나 위 대한 교훈인가! 성서란 얼마나 고마운 책이며 위 대한 기적인가! 그리고 이 책은 인간에게 얼마나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 영혼에 가장 가까이 펼쳐지는 그의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곧, 인간 모 순과 정면으로 맞닥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것은 곧 신앙의 절실함으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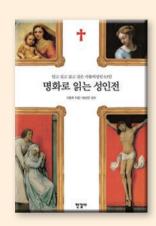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면서 도스토예 프스키는 논리와 이론의 세계와 이별을 고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 명화로 읽는 성인전

알고 싶고 닮고 싶은 가톨릭 성인 63명

고종희 지음 / 방상만 신부 감수 한길사 / 2013



책이 제법 묵직하다. 그래도 한 손엔 잡힌다. 한눈에 딱 봐도 적지 않은 분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을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대학교수이자 미술사학자인 저자 고종희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방대한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다. 굳이 첫 장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책을 읽기 전에 머리말 읽기를 권한다. 저자의 집필 동기와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나온다. 저자는 '명화로 읽는 성인전'을 내기위해 장장 9년이 걸렸다고 했다.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꼼꼼하게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성인 63명을 11개 챕터로 나누어 놓았다. 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 바오로를 시작으로 4대 복음사가인 마태오, 마르코, 루카, 사도 요한이 나온다. 이어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톨로메오, 안드레아, 필립보, 소야고보, 대야고보, 토마스가 소개되고 예수님 시대의 성인으로 세례자 요한, 라자로, 아리마태아의 요셉, 니코데모, 안나, 요아킴, 요셉, 베로니카, 마르타,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온다. 또 박해시대의 순교 성인으로 스테파노, 고스마, 다미아노, 세바스타아노, 크리스토포로, 라우렌시오, 클레멘스, 세르지오, 발렌티노가 나온다.

지금까지 소개된 성인은 서른 한 명이다. 아직도 소개해야 할 성인이 서른 두 명이나 남았다. 성인 63명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박해시대의 순교 성녀인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루치아, 마르가리타, 체칠리아, 우르술라, 바르바라, 아카타, 아 네스가 나온다. 위대한 어머니로 헬레나, 모니카가 소개된다. 교회학자로 암브로시오, 그레고리오 대교황,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누스, 카타리나, 유스티노,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온다. 수도회 설립자로 도미니코, 베네딕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클라라, 파도바의 안토니오, 이냐시오 로욜라, 미라의 주교 니콜라오, 안토니오 은수자, 엘리사벳 씨튼이 소개된다. 천사로 안젤로(안젤라), 가브리엘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가 나온다. 에필로그, 그 기적은 계속된다에서는 젬마가 나온다.

저자는 이 모든 성인을 소개하면서도 대충하는 법이 없다. 베드로를 예로 들자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활동(1 세기, 팔레스티나, 로마) 수호성인(열쇠공, 어부, 생선장수, 문지기) 축일(6월 29일) 상징(열쇠) 특이사항(제1대 교황. 예수님의 12사도 중 최연장자. 흰머리의 노인으로 그려짐)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다. 이런 간단한 정리가 성인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돕고 좀 더 친근하게 성인의 곁으로 다가가는 유인이 된다. 게다가 명화에 대한 설명만 지루하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친절하게 장과 절까지 표기해 두었다.) 명화에 나타난 성인에 대해 미술사적인 설명을 알기 쉽게 해놓았다.

저자는 성인(聖人)을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칭하고 그들을 '창공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 잠깐 멈추세요 내 영혼을 위한 3분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

책으로 하는 한 달 피정

게르하르트 바우어 지음 / 최용호 옮김 / 가톨릭출판사 / 2014



책으로 하는 한 달 피정 시리즈는 '잠깐 멈추세요' '내 영혼을 위한 3분'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 게르하르트 바우어는 가톨릭 사제이자 신학 박사이다. 그는 '사제들을 위한 사목자'로 사제들의 영성 상담 · 지도를 하고 있다. 1987년부터 프리드베르크—오트마링에 있는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 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수많은 피정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책으로 하는 한 달 피정' 시리즈를 2010년부터 출간하고 있다.

작은 책이다. 그렇다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엔 행간과 자간이 주는 힘이 제법 세다. 작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책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변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변화를 재촉하지는 않는다. 총 세 권이니 한 달에 한 권씩 석 달에 걸쳐 묵상을 통해 피정의 오솔길을 걸어 보자.

먼저 '잠깐 멈추세요'를 살펴보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묵상으로의 초대'라는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자고 말한다.

"잠깐 멈추세요, 어딜 그리 급히 가나요? 하늘나라는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른데서 하느님을 찾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분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앙겔루스 실레시우스)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잠시 멈춰 서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 머물러 볼 것을 권하며 우리게 묻는다. 자신이 본래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하고 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내 영혼을 위한 3분'은 말 그대로 '자아'에 대한 글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단상을 모아 놓았다. 저자는 삶의 주체는 '나 자신'임에도 정작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나 물질적인 것 등 '나 자신' 말고 외적인 것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나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와 마주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더해 줄 더 많은 것을 향한 갈망'을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셨다고 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주변의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 자기 삶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자신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이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목표를 세우라고 말한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라는 구절처럼 하느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짧은 말씀이면 충분하다. 나아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는 것이 된다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각오, 열정으로 내적인 일치를 이룰 때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은경 편집위원

57

# 미사의 구성과 시작 예식 해설

영어권 나라를 여행하거나 연수나 유학 그리고 주 Sign of the Cross(성호경)를 바침으로써 미사가 시 재원으로 나갈 경우 한인 성당이 없는 곳에서는 영어로 드리는 미사(English Mass)를 참례해야 하 는데 영어도 어려운 데다 전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30여 년 전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연수할 때 미국인 성 당에서 미사를 드리곤 했는데 짧은 영어 실력이지 만 그런 대로 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전례문과 기도문을 영어로 접했던 덕분으로 생각 된다. 강론(homily)의 내용은 주제에 따라서 또는 신부님에 따라서 쉽게 알아듣기도 하고 잘 알아듣 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사 통상문과 기도문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익혀놓으면 미사참례에 큰 인사가 끝나면 참회의 예절이 이어진다. 도움이 된다.

#### 미사의 구성

가톨릭교회의 미사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 다. 나라별로 언어가 다를 뿐 내용과 순서는 똑같다. 미사란 말은 이탈리아어인 'Ite missa est' (가라! [모 임은] 해산한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어로는 mass 라고 한다. 미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시 작과 마침의 예식(Introductory Rites & Concluding Rites)과 말씀의 전례(Liturgy of the Word) 그리고 성 찬의 전례(Liturgy of the Eucharist) 등 전례로 구성된 다. 이번호에서는 시작의 예식에 대해 알아본다.

#### Introductory Rites

시작 예식은 입당(Entrance) 부분과 인사(Greeting). 참회예절(Penitential Rite), 자비송(Kyrie)과 대영광 송(Gloria) 그리고 사제(priest)의 기도로 말씀의 전례 를 준비하는 예식이다.

입당성가(Entrance Song)와 함께 사제가 입장하여

- †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 Amen.
- † The Lord be with you!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And also with you! (또한 사제와 함께)
- †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 And also with you.

- † As we prepare to celebrate the mystery of Christ's love, let us acknowledge our failures and ask the Lord for pardon and strength. I confess to almighty God
- And to you, my brothers and sisters, that I have greatly sinned in my thoughts and my words, in what I have done and in what I have failed to do. through my fault, through my fault, through my most grievous fault, therefore, I ask blessed Mary. ever virgin, all the angels and saints and you, my brothers and sisters, to pray for me to the Lord, our God.
- † May almighty God have mercy on us, forgive us our sins, and bring us to everlating life.
- Amen

#### 자비송 (Kyrie)

Penitential Rite에 이어 자비송(Kyrie)을 바친다.

- † Lord, have mercy Lord, have mercy
- † Christ, have mercy. Christ, have mercy.
- † Lord, have mercy. Lord have mercy.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기도문 대신에 희랍어로 된 기도문을 바치기도 하는데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vrie eleison으로 하고 의미는 같다. 사순 이나 대립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영광송(Gloria)을 바취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people of good will.

We praise you, we bless you, we adore you, we glorify you, we give you thanks for your great glory. Lord God, heavenly King, O God, almighty Father.

Lord Jesus Christ, Only Begotten Son, Lord God, Lamb of God. Son of the Father.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receive our prayer; you ar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ave mercy on us.

For you alone are the Holy One, you alone are the Lord, You alone are the Most High, Jesus Christ with the Holy Spirit in the glory of the Father. Amen.

사제가 Let us pray~ 하고 본기도문을 바치면 Amen 하고 응답한다.

#### ※ Fundamental Catholic Prayers 주요기도문

#### Sign of the Cross (성호경)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 The Lord's Prayer or Our Father (주님의 기도)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 위의 전통적인 기도문을 현대 영 어로 개정한 기도문도 바쳐지는 데 고어체인 thy 대신에 your를, art 대신 are를 쓰고 문장도 약간 개정되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 Hail Mary (성모송)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t th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Jesus.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

#### Glory Be (영광송)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59

김태식 토마스 연합뉴스 기획위원

# Vatican 바티칸에선…



#### News.va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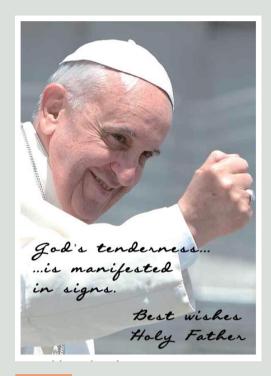
We cannot think of a Church without joy. This is the joy of the Church: announcing to all the name of Jesus.

Pope Francis, Twitter



Like · Comment · Share · 🖒 213 🗊 41 · 24 minutes ago · 🤄

우리는 기쁨이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기쁨입니다. -트위터에서



하느님의 자비는 표징들 안에 뚜렷이 드러납니다.



토요일 아침 교황 프란치스코는 바티칸 의료원인 '산 타 마르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방문하셨다. 가장 다정한 장면은 교황님 으로부터 주케토를 '빌린' 이 아이의 이미지입니다.



Fope Francis turned 77 today. This morning he celebrated Mass in the Santa Marta guesthouse with 4 homeless men, his closest collaborators and staff from the guesthouse, all of whom afterwards greeted him with a birthday song.

Those present at his morning Mass included Archbishop Pietro Parolin, the Secretary of State and Cardinal Angelo Sodano, the Dean of the College of Cardinals, together with staff from the Santa Marta guesthouse. The congregation also included the Almoner Monsignor Konrad Krajevskis who brought with him 4 homeless men who live in the streets around the Vabcan. After the mass, all those present wished the Pope a hoppy birthday and song greatings to him before poining him for brest/fact in the Vabcan guesthouse.

Today's reading was centered on the genealogy of Jesus and the Pope used this in his hamily to reflect on God's enduring presence in our lives throughout history. He said "God wished to live out his life alongside us" and "took his sumame from each of us."

"God," the Prope continued, "has always walked alongside his people," beginning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He did not want to come to redeem us without coming to live among us and share our lives. The Prope said this long list of God's people included "seints and sinners." The latter included "fish level sinners with committed serious sins and who didnt listen" to God's joins for them.

Pope Francis said in addition to accompanying us in our lives our God follows us and in this way, he displays His humility, His patience and His love for us. He concluded his homily with "a christmas wish" for all of us "to allow God to write our lives for us."



News.va English
February 5

Pope Francis, @Pontifex



교황 프란치스코는 오늘 77회 생일을 맞아 그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인 4명의 노숙자 및 숙소 직원들과 함께 숙소인 산타 마르타 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후에 는 모든 이들이 생일축하 노래로 교황을 맞 았습니다.



Pope Francis on the Eucharist: "When we celebrate the Mass, we don't accomplish a representation of the Last Supper: no, it is not a representation. It is something elser: it is the Last Supper itself. It is to really live once more the Passion and the redeeming Death of the Lord. It is a theophary, the Lord is made preparent on the lattor to be differed to the Father for the subsection of the world. The Moss is not 'heard', it is participated in, and it is a participation in this theophary, in this mystery of the presence of the Lord among us."

Pope Francis, Mass at Domus Santa Marta, February 10, 2014

Read the article: «Pope Francis: rediscover a "sense of the sacred"» (http://bit.hy/1npM4Io)



p7f6id+6720793395227538cist=a174127585984600.40

□ 63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성제를 올릴 때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와는 다른 최후의 만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열정과 죽음에서의 구원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제단에 봉헌된 주님의 현신입니다. 미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이 현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Dear young people, Jesus gives us life, life in abundance. If we

are close to him we will have joy in our hearts and a smile on our

젊은이들이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풍요로 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한다면 우 리 마음은 기쁨을 얻고, 우리 얼굴은 미소를 띠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에서

# 바티칸에선…





2014년도 제29회 세계 청년의 날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다."(마태 5.3)

젊은 벗들에게.

스물여덟 번째 세계 청년의 날을 위해 우리가 경험했던 리우데 자네이우에서의 엄청난 대회를 자주 되새기고는 합니다. 그것 은 훌륭한 신앙과 친교의 잔치였습니다! 브라질의 멋진 사람들 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카리타스노숙인센터를 수리하기 위 해 하레이를 팔다.

> 벗들에게, 오늘 아침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할리데이비 슨으로부터 기증된 오토바이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지 난 6월 할리데이비슨은 창사 110주년을 기념하여 다이 나슈퍼글라이드 1585cc를 기증했습니다. 이 오토바이 는 12,000~15,000유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개종시키는 분이 아니고 사랑을 주시는 분입 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삼종기도 강론에서 강조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없거나 멀리 도망 가 있는 당신을 찾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 느님의 사랑입니다."



News.va English

Pope Francis invites rabbis for lunch at his residence Casa Santa Marta to celebrate the day dedicated to Jewish-Christian Dialogue

or friends, we are sharing a nice unofficial photo taken at the House Sainta Martha, the Vatican's guesthouse where Pope Francis lives, owing the Pope having lunch with his old friend Rabbi Abraham Slorka from Buenos Aires, and with other rabbis who were invited to the Vatican to mark the day of Jewish-Christian Dialogue, on January, 16.

When Pope Francis was cardinal in Suenos Aires, he used to organise different inter-faith meetings with Rabbi Abraham Skorka.



교황 프란치스코가 유대인-그리스도인의 대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점심식사에 라삐들을 그의 숙소인 산타 마르타로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살고 있는 바티칸의 손님 숙소인 산타 마르타에서 촬영된 좋은 비공 식적인 사진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황이 부에노 스아이레스에서 온 그의 오랜 친구인 라삐 아브 라함 스코르카와 1월 16일인 유대인-그리스도 인 대화의 날을 기념하여 바티칸에서 초청한 그 의 다른 라삐 친구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장면입

교황 프란치스코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기경 일 때 그는 종종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만남을 아브라함 스코르카 라삐와 함께 개최했었습니





로마 외곽에서 사순피정 중인 교황

교황 프란치스코는 로마 남쪽 산허리에 있는 도시 아리시 아에서 교황청 고위성직자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사순피 정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은 지난 주일 성 베드로광장에서 신자들과 함께 삼종기도를 바친 몇 시간 후 버스로 바티 칸을 떠났습니다.

바티칸 안에서 피정을 하는 오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교 황 프란치스코는 올해 아리시아에 있는 바오로회 피정센 터에서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연례피정을 하기로 결정했 습니다.



News.va English shared a link.

(Vatican Radio) Cardinal Andrew Yeom Soo-jung, the Archbishop of Seoul, South Korea, has released a message thanking Pope Francis for deciding to visit his country this summer. Cardinal Yeom Soo-jung was made a Cardinal by Pope Francis in the ...



South Korean Cardinal welcomes visit of Pope Francis to his

Like · Comment · Share



(바티칸 라디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 레아 추기경은 이번 여름 한국을 방문하기 로 결정하신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 NEWS 24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20대 회장에 권길중 형제 선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2월 15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47차 정기 총회를 열고, 순교자 시복과 평신도 통일사도직 평화네 트워크 구성 등의 사업을 열기로 의결하는 한편 서울평 협의 권길중 회장을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16개 교구평협과 전국 단위 평신도사도직단체로 구성된 총회 참가자 70여 명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등을 승인하고, "말씀을 새기고 살며 선포하자."를 활동지표로 하는 201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는 그간 활동을 멈추고 있던 전주 평협과 교구설정 10주년 만에 평협이 구성된 의정부평협이 참가해 반가움을 더했다.

2014년 한국평협은 안동(4월), 원주(7월), 서울(9월), 부산(11월) 주관으로 네 차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일정 중에 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교회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시복·시성 기도운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지난 2009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도직단체인 우눔옴네스 집행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기로 한 만큼 행사 준비에 만전을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의했던 '평신도 통일사도직 평화네트워크' 구성을 구체적으로진행하기로 하고, 103위 시성 30주년을 맞아 평화순례등 기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막미사를 집전한 조규만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는 "평신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 모습의 한국교회도 없었을 것"이라며 치하하고 "말의 해를 보내면서 하느님



사랑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자."고 강론했다.

제20대 회장에 선출된 권길중 바오로 형제는 1940년생으로 평생을 교육현장에 몸담았으며, 장충여자중학교 교장, 영등포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고, 교육을 바로세우자는 취지의 참스승 다솜운동을 일으켜 활동했으며, 지난 1월 18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서울평협)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 신앙의 해 수기 공모 당선작 '순례길에서 만난 그분' 발긴



한국평협은 지난해 신앙의 해를 맞아 벌였던 신앙체험 수기공모 를 통해 당선된 작품을 모아 수기 집을 발간했다. 신앙인들이 생활 속에서 만난 하느님을 간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된 책 에는 사랑상 1편, 믿음상 2편, 희



홍광남 씨가 복역 중인 포항교도소에서 믿음상을 받고 있다.

망상 10편 등 총 3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인터넷 가톨릭서점(www.catholicbook,kr)과 가톨릭서점 직영매 장에서 12.000원에 판매된다.

#### '한국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평협 소속 사회사도직연구 소는 지난 1년간 19대 국회의 원 중 가톨릭신자 국회의원 57 명(신우회 가입 국회의원)의 의 정활동 중 개정 또는 제정하는 대표발의 법률안을 수집 조사 하여 가톨릭교회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분석한 '한

국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사회교리적 분석과 평가-제19대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발의 법안 을 중심으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법안별로 가톨릭 사 회교리 주제별로 인권, 가정(생명), 노동, 경제(복지), 정 치(행정), 평화(통일), 환경, 교육(문화) 총 8가지로 분류 한 뒤 법률적 해석보다는 법률안이 담고 있는 내용, 취지 와 성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국평협 은 발간된 보고서를 각 교구와 회원단체, 도서관 자료실 과 신우회를 통해 신자 국회의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우눔옴네스의 날 기도와 미사 봉헌

우눔옴네스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평협은 3월 19일 수요일 성 요셉 대축일에 우눔옴네스의 날을 기념하며 우눔옴네스의 기도를 봉헌하면서 특별 지향으로 미사를 올렸다.

우눔옴네스는 1948년 설립된 국제 가톨릭 단체로 사도 좌 인준 단체이며 유엔의 옵서버 자격 NGO이기도 하다. 한국평협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에 우눔옴네스의 날 기도와 미사를 봉헌해주기를 권고했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 신년하례식

####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제20대 서울평협 회장에 권길중 바오로 형제 선출 서울대교구 사도직단체와 교구장과의 만남의 자리인 신 년하례식이 지난 1월 18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개



최됐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서울 평협, 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손희송)와 사목국 단체사목 부(담당 이정준 신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신년하례식 에는 교구 인준 40개 단체의 단체장과 임원, 평협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2014년 사목교서에 대해 교구 사목국장 손희송 신부의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이해하고 사도직 활동의 실천에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가톨릭 마라톤동호회,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서울대교구 아버지학교는 각각의 단체 소개와 함께 활동에 대해 보고하면서 단체사도직 활동을 통해 체험한 하느님을 참가자들과 나눴다.

신년하례미사를 겸한 서울평협 정기총회 기념미사는 서 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추기경 서임 발표 이후 처 음으로 사도직단체들과 함께 봉헌하게 된 것으로 염 추 기경은 강론에서 "우선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도로 용 기를 얻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앞으로, 추기경의 옷 색깔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며 추기경 서임에 대한 감사를 전한 후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단체 소개에서 국제성경 사도 직후원회 등의 발표를 들으며 단체들이 카리스마에 따라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다. 충실하게 부르심에 따라 산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총으로 결실을 맺는다. 이것은 평신도사도직의 길이 아닌가 한다. 각 단 체들이 나 혼자. 우리 단체끼리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나누고 체험도 나 누며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사 후 참가자들 은 염 추기경으로부터 묵주와 수첩을 선물 받고 함께 기

# NEWS 24



념촬영을 했다.

기념미사가 끝난 후 서울평협 회원단체와 임원들은 제 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임기를 마치는 최홍준 회장은 감사 인사말에서 "4년 전 이 자리에서 예 상도 못했는데 회장에 지명됐고 소감을 통해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중책을 맡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 도구로 쓰시기 위해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며 이후 4년을 보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담당사제, 회원들 모두의 힘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1호 안건인 2013년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2호 안건인 201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은 이의 없이 통과하고, 3호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통해 회원들은 제7조 임원 구성, 8조 임원 선임과 임기에서 개인회원 부회장을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제13조의 일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어진 4호 안건인 임원개선에서 절차에 의해 교구장에 게 전해진 추천자 중 회장 후보자에 대한 발표를 담당사 제인 손희송 신부가 맡아 권길중 회장을 후보자로 한다는 교구장의 의지를 전달했다.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권길중 바오로 회장을 2년 임기인 서울평협 제20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감사에 단체에서 가톨릭언론인회를 선출하고, 개인사도직에서 현 감사인 손병선 회장을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부회장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다.

신임 권길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혼자는 할 수 없으나함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므로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생각이다.

우리가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면 우리들의 운동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손희송 신부는 "선출된 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기 바라며, 미력이나마 보태겠다. 협조와 수고를 바란다."며 마침기도와 강복으로 총회 일정을 마쳤다.

#### 공의회학교 개강 – 3월 3일부터 14주간



서울평협이 주최하는 '공의회학교'가 오는 3월 3일 개강한다. 공의회학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개설된다. '공의회학교'는 서울평협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로 공의회 문헌 전체를 본격적으로소개하는 교육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수강료는 일반인은 12만원, 수도자와 학생은 10만원이다.

#### 20대 회장단, 조규만 총대리주교 예빙



서울평협 제20대 회장단이 지난 3월 5일 조규만 총대리

주교를 예방했다. 권길중 회장과 새로 구성된 부회장, 감사, 사회사도직 연구소장 등이 예방한 자리에서 조주교는 올해 시복식과 관련해서 평협이 앞으로도 시복·시성운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지구회장회의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대전평협, 회장 이명수, 담당사제 김명현)는 1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논산 부창동성당에서 사목기획국 차장신 부. 논산지구장 신부와 지구회장 및 평협 상임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지구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지구별[홍성지구(4월), 대전서 부지구(6월), 대전북부지구(10월), 보령지구(11월)] 한생 명 운동 추진 계획과 AYD·KYA.협력 지원 계획. '예루살 렘 성경 공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목기획국 차장 이영일 야고보 신부는 "예루살렘 성경 공부에 지구 회장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바라며 모든 신자들이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u>아시아의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들을 정성을 다해 맞이</u> 하자!

대전평협은 3월 1~2일 이틀간 세종시 전의면 정하상교 육회관에서 '청년들의 신앙 성숙과 말씀을 통한 은총의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본당 회장단·단체장 연수회 를 개최했다.



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에서 "그동안 교구와 본당, 단체에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치하한 후 "금년이 한국천주교회가 설립된 230주년 되는 해이고 딱 30년 전에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위해 요한바오로 2세께서 방한을 하셨다."고 회고하면서 "올해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황님께서 오실 예정이고, 오시게 되면일정 중 절반가량을 대전교구에서 머무실 것이며 이는지금까지도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본당 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교구 내 14개 지구 소속 96개 본당과 8개 단체에서 300 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첫날 사목기획국 김명현 신부 주례의 개회미사를 시작으로 '봉사의 의미와 자세'라는 주제로 총대리 김종수 주교의 강의, 'AYD·KYD 계획발표'라는 주제로 청소년사목국장 박진홍 신부의 강의, '신천지의 실태와 심각성'이라는 주제로 사목기획국 차장이영일 신부의 강의가 이어졌다. 본당 회장단과 단체장들은 모르고 있던 부분과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는 값진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날인 2일에는 교구 사목기획국장 김명현 신부가 '말씀을 통한 은총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이어 이명수 평협 회장이 6월 4일로 계획하고 있는 'AYD·KYD 성공 기원을 위한 음악회'에 대해 설명하고 본당 회장단의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교구장 유흥식 주교가주례한 파견 미사를 끝으로 연수회를 마쳤다.

# NFWS 24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세계 평화의 날 미사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인천평협, 회장 정기회, 담당사제 안규태)는 2014년 1월 2일(목) 교구청 4층 대강당에서 교구장과 교구 사제단, 신학생, 수도자, 교구단체 및 기관 임원들,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새해 덕담과 함께 새 희망과 새로운 다짐으로 2014년을 기쁘게 열었고, 오전 10시 30분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와 사제단의 집 전으로 세계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했다. 강론에서 최기산 주교는 "주님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말처럼 힘차고 항상사랑과 웃음이 함께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 제물진두 성역화를 위한 도보순례



인천평협 주관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해안성당까지 진행되는 제물진두 성역화를 위한 도보순례가 30회를 맞았다. 제물진두는 병인박해 때 신자 9명이 처형된 교구 내 주요 순교터이 며 제물진두 성역화 도보순례는 2011년 10월 29일(토) 시작돼 지금까지 6,200여 명의 순례자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4 상반기 총회장 연수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수원평협, 회장 이래수, 담당사제 문희종)는 1월 18~19일 죽산성지에 있는 교구 영성관에서 총회장과 평협 임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총회장 연수'를 개최하였다. 연수회에서는 교구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길민 신부가 발표한 '교구 미래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종남 신부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 대한 소개, 생명문화연구가 이광호 교수의 '교회와 생명문화'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다.

연수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주례한 파견 미사로 마무리됐으며, 파견 미사 후 평협은 1억원을 교구 발전을 위해 교구장에게 봉헌했다. 미사 후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총회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주교는 "여러 총회장님들께서 봉사해주심에 깊이 감사한다."며 "산적한 과제와 소임 중에도 주임 신부와 신자들 간의 좋은 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14 평협 및 제단체 임원 연수 및 사목방문 실시

수원평협은 지난 3월 8일 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평협



및 교구 인준단체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평협 및 제단체 임원 연수 및 사목방문을 실시하였다. 제단체 임원들은 오전에 교구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길민 신부의 '수원교구 미래정책과제 50'을 듣고 그룹토의를 벌였고, 오후에는 담당사제 문희종 신부의 단체에 대한 사목방문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이성효 주교의 특강과 총평을 들었다.

수원평협과 제단체는 매년 사목방문을 통해 전년도 사업 결과와 결산,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점검을 받고 이를 통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행사 를 마치며 이성효 주교는 "다양한 봉사 직분에 초대받고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간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제인회 2013년 송년미사 봉헌



수원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하재택, 담당사제 김상 순)는 2013년 12월 21일 교구청 5층 성당에서 회원 가 족을 포함한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송년미사를 봉헌했 다. 이날 이성효 주교는 교구설정 50주년 행사가 거룩하 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 을 준 경제인회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한 해에도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실 수 있도록 청하자."며 미사를 주례했다. 이성효 주교는 강론에서 대림 제4주일을 맞아 교회가 전하는 '강생의 신비'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토모 교부의 설명을 소개했고, 미사말미에는 새로 영성지도를 맡게 된 사무처장 김상순 신부의 인사말이 있었다.

한편 가톨릭경제인회 규모와 회원 수에 관심을 보인 이성효 주교는 "새해부터는 지금의 10배, 100배의 회원이가입할 수 있도록 배가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겠다."고 격려했다.

#### 2014 신년 성령쇄신봉사회 밤샘기도회 개최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회장 이종운, 담당사제 정광해)는 1월 17일 오후 11시, 의왕시 청계동 하우현성당성령기도의 집에서 4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신년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밤샘기도회'를 개최하였다.

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제1독 서 사무엘기를 언급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헤어린 다고 하면서 때때로 '나의 뜻'을 먼저 찾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하느님 말씀에 지혜롭고 열린 마음으로 순종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교는 이어 "교구설정 50주년 을 전후해 우리 교구민은 복음으로 희망의 땅을 일구기 위해 '영적 성전'을 마련해왔다."고 말한 후 "당신을 배척 하는 이들의 요구까지도 사랑스럽게 들어주시는 주님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느님이시다."고 강조했다.

## NFWS &4

미사 후에는 정광해 신부 등 교구 사제단이 모든 참석자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했고. 안수기도 후에는 이보경(아빌라의 데레사) 강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수원교구 성령 쇄신봉사회는 매월 첫째 · 둘째 · 셋째주 금요일(금요일이 다섯 번 있는 달은 넷째 주 금요일도 포함)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인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안양대리구 하우현성당 성령기도의 집에서 밤샘기도회를 개최한다. 마지막 금요일(1월 31일은 설날인 관계로 기도회를 쉼)에는 대리구별 밤샘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 ME 본당 대표 교육 실시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 수원협의회(Worldwide Marriage Encounter Suwon, 이하 'ME 수원협의회'. 대표 팀 조봉훈 · 호경애 부부, 담당사제 김봉기)는 1월 18일 수원교구청 지하 강당에서 ME 가족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E 본당 대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본당에서의 ME 대표의 역할과 본당 활성화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15,12)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오전 9시에 시작해 본당 대표 지침 설명, 주말 및 주말 전·주말 후·사도직·재정 등 분과별 홍보, 본당 사례 발표, 참부모(॥), 미션 동영상 수 상작 상영 등으로 이어졌으며, 오후 4시에 교구장 이용 후 주교가 주례한 파견미사를 끝으로 마쳤다.

이날 교육 중에는, 'ME 주말' 확대에 기여한 성남대리구 곤지암본당 등 6개 본당이 '표창장'을 받았으며, '미션 수 행 우수본당'으로 18개 본당이 선정됐다.

### 2014 축구선교연합회 워크숍 개최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이하 축선련, 회장 윤용현, 담당사제 전삼용)는 1월 26일 오후,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교구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는 2014년도 제13회 교구장배(4월 27일, 용인 시축구센터) 축구대회 및 제10회 교구 총대리주교배(10 월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 축구대회 '운영 규 정(안)' 확정, 감사패 및 임명장 수여 등으로 이어졌다.

담당사제 전삼용 신부는 이원섭(디도)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각 대리구 축선련 회장에게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교구 및 대리구 임원들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는 가운데 교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 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교리그(6개 팀)·축구리그(12개 팀) 등 총 18개 팀이 참가하는 제13회 교구장배 축구대회 '조 추첨식'은 오는 3월 26일 오후 8시 교구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 꾸르실료 2014년 교육차수 봉사자 연수 실시



수원교구 꾸르실료(주간 정성자. 담당사제 우종민)는 2월

15일 교구청 영성관에서 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교육 차수 봉사자 연수'를 진행했다.

올해 13차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교구 꾸르실료는 '매회 합심해 교육을 진행할 20여 명의 봉사자가 교육에 대한 신념과 흐름을 완전 숙지하고 부서별 업무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담당사제 우종민 신부는 '봉사자의 자세'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봉사자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생활, 성사생활, 공부생활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 꼬미시움 간부 및 꾸리아 단 장 교육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단장 김상국, 담당사제 문희종) 는 2월 16일 아론의 집에서 꼬미시움 단장 및 꾸리아 단 장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성효 주교는 특강을 통해 '교구 미래 복음화를 위한 50주년 교서'를 해설해 단장들의 교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다.

또한 '레지오 역사'에 관한 특강을 한 김해걸 씨(예로니



모·전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단장는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으며, 레지오의 정신은 겸손, 순명, 온유, 기도, 인내심, 정결, 지혜, 열망과 성모님께서 지니신 높은 믿음의 덕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교육에서 김상국 단장은 '단장이 알아야 할 실무교육'을 담당했다.

한편 김상국 단장은 교육를 마치고 꼬미시움 단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서는 '4월 26일 청 년 쁘레시디움 도보 열차 성지순례 행사에 관한 사전 답사와 열차편 이동 시 안전사고에 관한 의견'이 논의 됐다.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강호석 회장 유임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호석)는 1월 25~26일 원주시 치악산드림랜드 유스호스텔에서 2014 년도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새 본당 임원과 단체장, 평협 임원 150여 명은 교구설정 50주년 축제를 한 해 앞둔 올해를 교구장 사목지침에 따라 '교우, 수도자, 성직자 일치의 해'로 보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회장 임기를 2년 유임했다.

교구 사목국장 김민규 신부는 교구장 사목교서 해설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내년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NFWS A4

강호석 평협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교구 사목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0주년 축제를 함 께 만들어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구장 김지석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일치를 이루고 본당과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며 "거창한 행사보다 사랑과 일치를 실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위원회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송년의 밤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2013년 12월 27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를 모시고 201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평신도위원회 총회장과 다섯 대리구의 총회장과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여성 부회장, 여성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등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 구성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매일신문사에 기증하였다. 이날 매일신문사 사장 신부가 참석하지 못해 나중에 직접 매일신문사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 상임위원 신년모임

대구평협은 2014년 2월 5일 저녁 7시, 상임위원 월례회의를 마치고 신년맞이 윷놀이를 했다. 3개 팀으로 나누어 담당사제 박영일 신부 팀, 평협 회장 팀, 또 다른 한팀으로 나누어 리그전을 벌였다. 세 팀 모두 경기에선 승부욕을 불태웠지만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했다. 그 결



과 3팀 모두 1승1패씩 나누어 가지며 동률을 이루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를 한마음 한뜻으로 잘해보자 고 다짐하는 자리로서는 최상의 결과였다.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4년 정기총회 및 본당회장, 제단체장 연수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부산평협, 회장 하창 식)는 지난 2월 9일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평협 임원, 본당회장 및 제단체장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정기총회와 본당회장 및 제단체장 연수회를 가 졌다.

부산교구 선교사목국장 김성남 신부의 '2014년 부산교 구 사목지침-가정 복음화의 해'를 주제로 한 강의로 시작 하여 이민정 선생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주 제의 특강과 정기총회, 총대리 손삼석 주교의 특강, 교구 장 황철수 주교가 주례한 파견미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산평협 정기총회에서 제38대 회장으로 사직대건성당 소속 하창식 형제가 제37대 회장에 이어 유임되었다. 또 한 연산성당의 권정수 형제, 용호성당의 김동식 형제가 감사로 선출되었다.

손삼석 주교는 "우리 신자의 기쁨은 영적이고 차원이 높은 기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예수님의 강생, 하느님의 뜻에 따랐던 자세,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십자가, 수난, 죽음, 부활 등 모든 과정이 기적이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같이 양념 구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견미사를 마치고 평협은 부산교구 본당을 대상으로 선교상. 교리교사상. 사랑 · 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제67차 도보순례



부산평협은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 한건 신부)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2월 22일 수영구 광안동 장대골에서 출 발해 3시간 30분 동안 온천천을 거쳐 기도와 도보를 하 면서 금정구 한국순교자박물관(구명칭 오륜대순교자성 지)에 도착하여 오후 5시에 감사미사를 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2014년 부산교구의 사목지침-가정복음화'에 발 맞추어 이날 어린이와 할아버지, 아빠 엄마 3대가 같이 도보순례에 참여한 모습이 눈에 띄어 보기가 좋았다.

미사 강론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한건 신부는 "박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찌 메시아를 떠났겠는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고 강조했다.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7회 교구평협 총회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청주평협, 회장 곽승



호, 담당사제 서철)는 '성체 중심의 지역복음화 해'라는 주제로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교구 연수원에서 본당 평협 회장단과 교구 활동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첫날은 담당사제 서철 신부가 주례한 미사를 시작으로 교구장 사목교서 해설, 교구 및 본당 현황 설명과 토론 시간을 가졌고, 이튿날은 정기총회에서 2013년 결산보고,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18대 평협 회장으로 곽승호 형제를 선출했으며, 교구장 장봉훈 주교의 파견미사로 끝마쳤다.

2014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교육 분야에 ①평협 회장 단 및 단체장 연수 ②교구단체, 교구평협 연수 ③본당 평 협임원, 본당교리교사 교육, 행사 분야에 ①신년교례미사 ②어르신 게이트볼대회 ③지구대항 족구대회 ④청주 ~대전평협 친선행사 ⑤평신도 도보순례 ⑥2014년 평협인의 밤, 사업으로 ①2050운동 지원 ②153운동 전개 ③교구단체 지원 ④은퇴신부님 찾아뵙기 ⑤교구 및 본당임원 위령미사, 기타사업으로 ①주교 복사단 활동지원 ②본당 명도회 활성화 지원 ③공소 전례, 활동지원 ④한국 평협 상임위원회 참석을 확정지었다.

청주평협은 이번 연수 및 총회에서 교구장 사목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평신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제18대 임원연수

청주평협 임원 25명은 주교 사목교서와 사목지침 실천 방안을 토론하고 새 임원들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 난 1월 25~26일 충남 무창포 비체팰리스 콘도에서 연

73

# NFWS 24



#### 수를 실시했다.

첫날은 담당사제 서철 신부의 시작미사, 주교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에 대한 강의와 분과별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이튿날에는 분과별로 토론한 주교 사목지침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정리하고 파견미사를 끝으로 연수를 마쳤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청주평협은 교구 사명 선언문인 '이 웃으로 세계로'를 실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주일미사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냉담교우를 50% 이하 로 낮추는 운동과 물적 나눔 3000운동, 신자 1명이 예비 신자 1명씩 인도하자는 1.1운동, "내 탓이오."와 같은 새 로운 사회적 운동을 개발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4차 정기총회와 복음화운동 경축행시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마산평협, 회장 김황성, 담당사제 강영구)는 제44차 정기총회와 복음화운동 경축행사를 지난 2월 15일 가톨릭교육관에서 교구 본당회장, 교구 단체장 및 임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교회의 희망 평신도'라는 주제로 '제1부' 김길수 교수의 특강(순교영성과 평신도 사명)과 지구별 오리엔테이션, 교구평신도사도직활동지침서 발표, '제2부' 제44차 정기 총회와 평신도 선언(우리의 다짐), '제3부' 교구장을 모시 고 '복음화경축행사'로 제5회 '복음화대상'(2013년도) 시 상식과 '책 읽는 그리스도인' 운동의 제4회 '독후감쓰기' 시상식과 파견미사로 마쳤다.

제44차 정기총회에서 제23대 임원으로 교구평협 총회장 김덕곤, 수석부회장 안상덕, 감사 허순기, 위기섭 형제가 새로 선출되었으며, '복음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선교대 상'으로 단체부문에 공경하올 어머니마.(명서동), 개인부문에 임춘성 형제가 수상하였다. '회두대상'에는 단체부문에 하늘의 문마.(양덕동), 개인부문에 김경자 자매가 수 상하였다. 또한 '책 읽는 그리스도인' 운동의 '독후감쓰기 공모전'에서는 김영일 형제가 최우수상('나는 가톨릭신자 입니다')을 수상하였다.

#### 교구 여성협의회 제40차 정기총회



마산교구 여성협의회(회장 김연숙, 담당사제 강영구)는 지난 1월 14일 교구청 강당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 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128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회원들은 총회에 앞서 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강의를 들었다. 안 주교는 강의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물질의소유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여 그것이 발전이라고 착각한 탓에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을 치유하려면 가정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맑은 정신으로 하느님을 제대로만나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의 후 총회에서는 지구별 활동과 결산보고, 그리고 2014년 활동계획과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이후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주례로 파견 미사를 봉헌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 전례 꽃꽂이 제1회 작품 전시회



마산교구 전례꽃꽂이회(회장 박성희, 담당사제 강철현)는 지난해 12월 6~8일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제1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에는 성경 말씀과전례, 축일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 25점이 전시됐다. 박성희 회장은 "타 교구에 비해 출발이 늦었지만, 회원들의 뜨거운 열의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면서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08년 창립된 교구 전례꽃꽂이회는 70여 개 본당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님과 신년하례식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광주평협, 회장 나 현식, 담당사제 우원주)는 지난 1월 1일 광주가톨릭대학



교 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 제단체임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과의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새해 첫날을 맞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총대리 옥현진 주교는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새해 덕담으로 한 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43차 정기총회



광주평협은 1월 25일 평생교 육원 대건문화관에서 본당 사 목협의회 회장과 교구 제단체 대표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 다. 2013년도 사업실적과 결 산, 감사 보고가 있은 후 2014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

의하고 승인하였다. 이어 인선에서 회장 나현식, 부회장 최남순, 감사 김충식, 우준상 형제가 선출되어 제33대 평 협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 제33대 평협, 제6대 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



# NEWS 24

광주평협과 여성위원회는 2월 18일 평생교육원 소성당에서 제33대 신임 임원들을 축복하는 미사를 봉헌하고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새로운 소임을 맡은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정권 회장, 조재현 부회장, 고문희 부회장 등 전임 임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 제1차 상임위원회

광주평협은 3월 8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심의하였다. 특히 금년 사업 중 '주교님과 함께 걷는 도보성지순례'와 '평신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신임 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상견례를 통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여성위원회 제10차 정기총회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 장 홍순덕, 담당사제 우원주) 는 지난 1월 18일 광주가톨릭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본당 여성부회장 8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개최 된 특강에서는 담당사제 우원

주 신부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교회에서의 여성 임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총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활동과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 201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어 제6대 임원으로 위원장 홍순덕, 부위원장 오순자, 감사 김영숙 자매가 선출되어 새로 여성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 마리아사업회

#### 이탈리아의 자마니 교수와 가진 질의 · 응답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12월 7일 포콜 라레 본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 합과 SHC(Servant Holding Company)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이며 권위자로서 한국 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른 관 심의 증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 에는 한국협동조합연합회의 창립총회 및 발대식에 기조 연설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날 포콜라레 회원들과의 만남에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부터 협동조합, 그리고 공유경제기업에 대한 자마니 교수의 설명이 있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자마니 교수가 설명한 공유경제(Economia di comunione, Economy of communion)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초대 크리스찬들이 재물을 서로 나누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인간중심의경제 조직을 지향하는 것으로, 포콜라레 창설자인 끼아라 루빅이 1991년 처음 제안한 경제체계이다.

#### 매괴 중고 학생들과 젠들의 합동 성탄 축제

"우리는 어리고 가진 건 적지만, 사랑으로 모두 함께 나누고 싶네. 배고픈 친구 위해 일하리…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일치 향한 오솔길…"

12월 21일 토요일 충북 음성군 매괴고등학교(매괴여자 중학교) 강당에는 이 같은 노래가 울려 퍼졌다. 매괴중고 등학교 학생 93명과 포콜라레운동에 속한 청소년들인 3



젠들 51명(서울, 경기, 청주, 대전, 대구, 김해에서 참석) 의 만남이 있었다. 이날 성탄 축제는 청소년 창의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곳 매괴고등학교(교장 박영봉 신부)와 포콜라레운동이 수개월 전부터 공동 기획해 상호 협력 아래 이뤄졌다.

## 대구 행복마을 5주년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온기를.'



대구 행복 마을이 지난 12월 설립 5주년을 지냈다. 이주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등을 위해 열리는 무료 진료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중학교에서 매월 셋째 일요일에 열린다. 한국 포콜라레운동 대구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매월 80여 명이 내과, 외과, 치과, 한방 진료,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이주 노동 자들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모두 가톨릭신자들이어서 이들을 위한 주일 미사도 봉헌되며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종호 신부가 미사 주례를 맡는다. 진료 외에도 생활용품 마트, 이 · 미용 봉사 코너도 함께 진행되며 남녀 청소년들이 그룹별로 돌아가며 이곳을 방문해 안내 봉사를한다.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전국 가톨릭계 병원 간호수도자 연수 개최



전국 가톨릭계 병원 간호수도자 연수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마태 20,26)라는 주제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나자로마을 내 아론의 집에서 열렸다. 참가한 수녀들은 15개 병원에서 온 총 61명이었다. 올해로 4회째 모임을 갖게 되었다.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원장 신상현 수사의 '은총의 동반 자로서 의료사도직에서의 기쁨'이라는 강의가 있었다. 이어 천주교 어농 청소년 성지 담당 김태진 신부가 초창 기부터 어농성지에 관련된 복자(2014년 시복 예정)들의 삶에 대한 애달픈 하느님에 대한 고백과 찬미 노래를 들 려주었다.

성체조배, 십자가 껴안기가 이어졌으며, 병원별 간호현 장의 나눔과 새로 준공되는 인천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소개, 친교의 시간이 있었다.

이튿날 수원교구 사회복음화 국장 홍명호 신부의 미사와 셋째날 이성효 총대리 주교의 미사로 끝마쳤다.

각자의 손을 씻으며 죄를 용서 받고, 새로운 말씀의 선물을 받고,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서 준비해준 선물도 함께 나누며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으며, 1년 후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 <u>제36회 정기대의원 총회, 제55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u> 개최

2014년 2월 8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라는 주제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제36회 정기대의원



총회, 제55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이 개최되었다.

전국 13개 교구에서 총 102명이 참석했으며 영원한 도움 의 성모수도회의 최 스피릿따 수녀의 '주님의 길을 찾아 서'란 제목의 특강과 시상식이 있었다. 우수교구상은 춘 천교구(상장과 상금 30만원), 특별상은 청주교구(상장과 상금 20만원), 공로상은 광주대교구 윤영희, 대구대교구 송경숙, 부산교구 진옥주 자매 3명에게 각각 돌아갔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3년 교구별 사업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안(창립순) ▲201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선출로 진행되었다. 새 임원으로는 회장에 홍현자 수녀(서울성모병원 간호부원장), 제1부회장 임성자 수녀(의정부성모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 노원자 자매(여의도성모병원 병동간호팀장), 총무 김미경 자매(서울성모병원), 감사 박호란 교수(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이숙정 교수(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가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4년의 임기를 마친 회장 채계순 수녀의 이임 인사가 있었다.

공지사항으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은 2014 년 제주교구, 2015년 춘천교구, 2016년 원주교구로 정해 졌다. 대표담당사제인 학교법인 보건정책실장 이경상 신 부의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하면 총회를 마무리했다.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2014년 정기대의원 총회

한국가톨릭병원협회 2014년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2월 1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상술 신부의 시작기도 후 최종영 사무총



장이 의결 정촉수를 확인함(총 59명 중 참석 24명, 위임 장 20명, 총 44명으로 성원)으로써 강무일 회장이 개회 를 선언하였다

작년 10월 정기세미나 이후 바뀐 병(의)원장의 소개와 지난 회의 회의록 낭독에 이어 안건토의가 진행되었으며 ▲2013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승인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인천 "국제 성모병원"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가입 승인 요청 ▲협회비 10% 감액(안) 상정 ▲2014년도 정기세미나 ▲2015년 정기총회 날짜 및 장소 확정 등이 논의되었다.

협회비 10% 감액(안)은 악화된 병원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2014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정기세미나는 1박2일로 청주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의 정기총회 장소는 2월 17일 개원하는, 협회의 38번째의 회원병원으로 가입된 인천 '국제성모병원'으로 결정되었다.

#### 인천 '국제성모병원'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원가입 승인



2014년 2월 17일 축복미사와 함께 개원을 한 인천 '국제

성모병원(병원장 천명훈 교수)'이 한국가톨릭병원협회 38번째 회원병원으로 승인돼 가입했다.

재단은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이며 단일 건물로는 인천 최대 종합병원이고, 미래형 첨단병원이며, '메디컬 테마 파크'로 35개 임상과, 12개 전문진료센터를 보유하고 있 다.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은 457개 병상으로 개원했다.

####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제140차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회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는 2월 10~14일 4박5일 동안 인천교구 강화 갑곶성지에서 사제 수도자 40명이 모여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회를 가졌다. 바쁜 일정을 쪼개어 오신 신부님, 수녀님들께 주님께서는 풍성한은사와 축복을 내려주셨다. 주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드리고 봉사해주신 신부님, 수녀님들과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2014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는 2월 22일 가톨릭회관 618호에서 총원 40명 중 참석 26명, 위임 10명 총 36명으로 총회를 열었다.

이란 마산교구 회장의 기도회로 시작하여 김현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13년도 감사보고, 사업보고, 회계보고를 약 2시간에 걸쳐 세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상정안건 심의로 회의가진행됐다. 2014년도 사업계획을 요약하면, 모든 신앙인의 신앙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운동은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안의 생활'을 영성적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성령 안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은사는 이 운동의 특성을 잘 표현하여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성령의 은사로 사랑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 온 것은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은사 활용에서 드러난 잘못된 모습 외에도 '은사'라는 표지에만 연연하여 '성령 안의생활'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3년은 첫째, '성령쇄신 운동의 본질 회복'과 둘째, 모든 신앙인이 누려야 할 '은사의 보편적 사용'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의 실행계획으로 1) '성령 안의 생활' 개념 정리 2) 성령 안의 생활을 위한 지침인 회원수칙 제정 3) 기도회 안에 성령 안의 생활 나눔시간을 갖기로 했으며, 두 번째 목표의 실행계획으로 1) 성령 안의 생활 사례 수집 2)신앙 생활체험 수기 공모 3) 교재 정비(성령세미나, 성장 세미나, 봉사자교육)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3년은 협의회가 주관· 주최하는 전국대회가 있었던 해로 시간이 부족하여 목 표의 절반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는 대회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재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여 내실 위주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 〈활동목표〉

- 1. 은사의 보편적 사용
- 1) 본당 기도회 기능 강화를 위한 기도회 자료 공유
- 2) 은사학교 봉사자 양성

# NEWS 24

- 3) 은사 사용 결과에 대한 사례 발표회 실시
- 4) 교재정비(성령세미나, 성장 세미나, 봉사자교육)

####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한국 가톨릭학교법인 연합회(회장 최기산 주교, 사무총 장 박찬복 신부)는 2013년 가을연수 대신 2014년 1월 겨울방학 중에 일본 나가사키 성지를 순례했다. 전국에서 32명의 가톨릭학교 교장들이 참석했으며, 1월 6~9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 지역 가톨릭 사적지와 원자폭탄이 떨어진 자유공원을 둘러봤다. 이를 통해서 일본 가톨릭교회의 선교역사와 참혹한 박해의 순교지와 순교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일본 순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의 교육현실을 비교하고, 학교의 운영과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식과 2013년 사업 및 회계보고, 의안 심의, 우정의 시간과 파견미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작년 11월, 제7차 세계대회에서 아시아태평양그룹(APG) 회장국에 선임된 한국 꾸르실료는 이번 한국협의회 총회 에서 APG본부 운영 및 APG 회장국 홈페이지 제작에 관 해 논의하고 세계 꾸르실료 운동의 중심국가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한국 꾸르실료 운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꾸르실료 기본사상 한글 본 번역 출간 ▲봉사자형성교본 출간 등을 결의했다.

또한 2년 동안 한국 꾸르실료를 이끌고 갈 임원 선출에 서는 회장교구에 서울대교구, 부회장교구에 광주대교구 와 수원교구, 감사교구에 의정부교구와 대전교구가 각각 선출됐다.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제45차 총회

꾸르실료 한국협의회(회장 장주영, 담당사제 임덕일)는 2월 22~23일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에서 제45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협의회 총회에는 전국 15개 교구(서울, 대구, 광주, 부산, 수원, 인천, 대전, 전주, 청주, 마산, 춘천, 원주, 안동, 제주, 의정부. 이상 꾸르실료 설립 순) 꾸르실료 담당사제, 주간 및 임원 등 18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개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